朝鮮日報
夕刊
八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이룬』市를奪還코저 政府軍決死激戰
全線에猛烈한攻擊開始、到處에叛軍을擊破
政府當局勝戰을言明

【마드리드七日發同盟】政府軍은 이룬市가 叛軍의 손에 陷한 以來 비스케灣海岸地方과의 連絡을 遮斷當하엿슴으로 산·세바스찬市孤立한 友軍의 救援에 對하야 作戰을 講究中이든바 그目的을 爲하야는 爲先 急速히 佛國領에 沿한 各都市의 叛軍을 驅逐하고 이룬市를 奪還하는 外에 方途가 업다하야 七日朝來 카탈로니아地方部隊는 全線에 亘하야 活潑한 運動을 開始하고 爲先 左翼은 아라곤附近의 아라곤嶺에잇는 叛軍에 猛攻擊을 開始하야 此를 擊退하엿다 一方 右翼으로 떼스카市에 向하야 進擊 同市와 하카市를 連結하는 叛軍과의 連絡線을 遮斷하고 떼스카市郊外 세스타모町을 占領하야 目下激戰中이다 同時에 아스츠리아스地方의 義勇軍도 兩方에 分하야 一軍은 오비에도 救援에 一軍은 갈리시아方面에 向하야 到處에 叛亂軍을 擊破하면서 快速度로 進出하고잇다

【마드리드七日發同盟】마드리드政府當局은 南北戰線 特히 톨레도市 꼬르도바方面에서 政府軍이 各地에서 勝利하고잇는 旨를 다음과 가티 言明하엿다 톨레도方面의 政府軍은 各地에서 勝利를 하고잇다 코르도바要塞에잇든 叛軍도 이미 繼續하야 政府軍에 降伏하야다 사라고사州要塞에 集結한 叛軍도 政府軍의 猛攻擊에 陷落은 時間問題가 되고잇슬뿐이다

人道化調停回繞코 外交團對立激化

【東京電話同盟】七日 外務省에 達한 西班牙의 情報를 綜合하건대 叛軍의 이룬市殺到의 結果 마드리드로부터 佛領으로 갈에는 카탈로니아州를 남긴것 뿐으로 佛國對西班牙政府軍의 特殊關係도 從來와 가티 재미잇는것이 아니라고한다 現在 西班牙駐在外交團은 마드리드 산·츄안·도·류스·아리칸테 三都市에 分駐하야 日本의 使臣도 마드리드와 산·츄안·도·류스市에 分駐치안흘수업는 形便인데 산·츄안·도·류스市에잇는 丁抹、英國、佛國、伊太利、白耳義、체코슬로바키아、瑞典、諾威、芬蘭의 各大使는 三十一日 內亂人道化의 協定締結을 西班牙政府에 要請하고 政府軍이 이를 認定하면 外交團이 率先하야 叛軍에 對하야 協定締結을 行하겟다는 旨를 要請하얏는데 三日에 至하야도 政府軍側에서 何等 回答이 업서 外交團은 五日을 期하야 人道化調停에 對한 콤뮤니케를 發表하기로 內定하고잇든바 四日 伊太利大使가 協定을 깨트려 人道化協定에 對한 伊太利政府의 單獨的斡旋方針에 物議를 釀成하게되엇다 一方 알헤시라스에잇는 獨波使臣은 산·츄안·도·류스組에 參加치안코 獨自의 方向으로

산·세바스챤向해 叛軍總攻擊開始
政府軍의空襲도猛烈

【앙데七日發同盟】叛軍은 七日早朝부터 北海岸政府軍最後의 堅壘 산·세바스챤市에 向하야 攻擊을 開始한바 攻擊의 主力은 同市의 咽喉인 토리체르베要塞에 集中되여 叛軍은 重砲의 掩護射擊下에 멀리서 政府軍을 壓迫하고잇다 砲聲은 殷殷하야 遠雷와 如히 앙데에도 들려오다 同要塞이 陷落되면 산·세바스챤은 占領된것과 同樣으로 叛軍側은 「同市는 이미 我等의 手中에잇다」고 豪語하고잇다 政府軍側의 飛行機도 또한 크게 活躍하야 이룬、페다라비아의 上空에 飛來하야 頻繁히 爆彈을 投下하야 凄慘한 爆破의 光景을 나타내고잇다 叛軍側의 消息에 依하면 산·세바스챤守備의 政府軍은 同市의 防衛方法에 對하야 無政府主義者側과 社會主義者側의 意見이 相違하야 內爭을 演出하고잇다고한다

聖旨

天皇陛下께압서 御差遣하압신 牧野侍從은 七日 總督府에서열린 聖旨傳達式에서 南總督에게 對하야 左의 聖旨를 傳達하엿다。

聖旨

天皇陛下께압서는 今般 貴管下 暴風雨로因한 被害가 甚大한것을 듯자옵시고 기피 御軫念하압시와 詳細히 그實狀을 觀察케 하압시기 爲하사 侍從을 御差遣하압시는 旨의 御沙汰가 계옵섯숩니다

右貴管下一般에 널리 御傳達하기를 바랍니다

牧野侍從、江原道에

今次風水害에對한 陛下의 聖旨를 捧爲하고 入京하야 昨七日 總督府에서 聖旨傳達을 終了한 侍從牧野貞亮子는 災害地實地視察次로 八日午前九時 自動車로 호텔을 出發하야 白井宮內事務官 今吉拓務省管理課長을거느리고 矢島農林局長 伊藤警務課長의 案內로 江原道春川에 赴하엿다 午後二時春川道廳에서 聖旨를 傳達한後 午後五時歸京 九日朝發 安邊을經由하야 溫井里에 向할豫定이다

白頭山探險記

赤峯、十一日、茂峰으로부터 神武城가는 途中이다。우리一行을

千里天坪處處에 原因모를山火跡

⑱ 徐 椿

魂내인 그뜰막 압헤 조고마한 한 또랑이 잇다。비록 또랑이나 亦是、所謂 廣跡로 건너 뛸수는 업는데다。할수업시 그물을 徒涉해야 될판인데 또랑에 當到하야 左右를 살펴 본즉 그또랑에는 異常한 풀이 一跳鞴假衞을 相饒하야 군데군데 낫는데 그풀의 뿌레기(根)인지 줄기(幹)인지 그것은 仔細히 알수 업스나 何如間 그根幹을 뛰여 집고 건너가면 다리(脚)에 물을 대지 안코도 그냥 건너갈수가 잇슴을 發見햇다。마치 저 人間世界에 뛰여 집흘수 잇슬만한 距離에 돌(石)을 노아 跳橫(飛石橋)를 만들드시 이 또랑은 그異常한 풀로서 自然的跳橋를 形成해 잇슴을 본다。이것을 보고 大自然의 布置가 實로 妙하게 되여 잇다는 感을 느끼게 되엿다。但 나는 이풀을 집고 뛰여 건너다가 中途에 한발을 잘못 집허서 물에 빠저버렷다。何如間 그고마운 풀의 이름을 드러 알엇더니 只今 이저버린것은 遺憾이다。

그外에 茂峰、神武城間에 우리는 큰 내를 둘이나 건넛다。亦是、豆滿江支流일것이나 五萬分一地圖를 차저 보아도 이름은 업다。或은 이두내를 가르처서 하나는 紅土水、하나는 石乙水라고하나 그것은 잘못이다。紅土水는 그淵源을 圓池로부터 發한것으로서 只今 우리가 行軍하는 코-쓰로부터 幾十里의 東便에 잇는 물이요 石乙水 亦是、紅土水의 西方 이웃에 잇는 내로서 이코-쓰로부터는 훨신 東便에 잇는것이다。왜 이말을 어써서 辯明하느냐? 하면 明治四十二年九月八日 日淸間의 定界條約에 依하야 石乙水는 國境이 되여 잇기때문에 石乙水에 關한 觀念과 및 그所在는 이것을 明確히 하여둘 必要가 잇기때문이다。何如間 이 두 내ㅅ물을 건너면 苦生이 如干 아니엇다。徒涉이라 넘에에 우리一行은 人間에 苦면 옷을 것거나、벗고서 건너가느냐? 하면 그럴것이 아니라、옷을 입은채로、신도 신은채로 그냥 건너 가는것이다。미끄러운 돌에 너머질듯 너머질뜻하면서 기피가 허리까지 닷는 急流를 건너가는것은 決코 容易한 일이 아니엇다。하도 여러이 갓기때문으로 남도 건너니 나도 건널수가 잇거니하는 밋는 마음이 잇기에 건너지 萬若 밋는 마음이 업다면 到底히 무서워서 다리도 敢히 드려노치 못할만한 곳이엇다。

물을 재찟질하야 어서 건너가기를 督促하는 馬夫、먼저 건너가서 方今 건너는 中에 잇는 사람에게 여튼 方向을 가르키는 사람、뒤로 와서 남이 건너고 잇는 方向을 살피는 사람、건너는 途中、水中에 잇는 큰 바위에 서서 求景하는 사람、맨 뒤에 서서 人馬에 걸키어 건너지를 못하고 제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때 이 環境을 背景으로한 人馬의 羅列布置와 그騷亂한 光景은 무어라고 形言할수 업는 現象이엇다。

둘재ㅅ 큰 내를 건널때에는 前列警備隊가 古木老齡을 가로노아 馱馬까지 건널수 잇도록 다리를 노아 준 德澤으로 比較的 騷亂업시 건널수가 잇섯스나、그래도 이 다리에 나려오는데는 急한 傾斜가 잇섯기때문에 馱馬는 문적 苦生을 하고서야 건너왓다。

千里天坪의 大密林地帶에 한가지 異常한 光景이 잇스니、그것은 卽、山火地帶이다。이미 茂峰露營地도 그러햇거니와 密林地帶를 죽 가노라면 數十里에 한군데씩 面積數町步에 亘하야 山火로 因한 曠地가 잇슴을 본다。이曠地 또는 露出地에는 枝葉은 全部 불타버리고 줄기만 남어 잇는 枯木이 數萬本씩 드러서잇슴을 본다。密林地帶로 香을 헤치고 갈때에는 가슴이 막히는듯이 沓沓하다가도 이 山火地帶에 逢着하면 비로소 압이 터진것을 볼수가 잇는까닭으로 마치 저 沙漠에서 오아씨쓰를 만나는듯한 느낌이 잇다。그러나 生氣潑剌한 靑松이 뭘틀어서 들러서 잇는 叢中에 비록 나무일망정 다 죽어버린 殘骸만이 죽 느러노히어 잇는 光景은 어찌 생각하면 可憐한듯하야 참아 볼수가 업다는 생각도 이것을 禁할수가 업섯다。

山火는 무슨 때문으로 나는것이냐?하는것은 한 硏究거리임을 잇지 안흘것이다。이에 對하야 여러 同行과 討論해 본 結果에 依하면 大槪、三說이 잇다。一은 落雷說이니 俗所謂、벼락을 마저서 山火가 이러난다는 말이오、二는 摩擦說이니、모진바람에 樹木과 樹木이 서로 摩擦되는 結果로 불이 난다는 말이오、三은 人火說이니、亦是、지나는 사람의 故意의 放火 又는 過失의 失火로서 山火가 난다는 말이다。勿論、摩擦說도 理由업는 말은 아니나 余로써 보건대 人火說이 가장 事實에 가까운것이오、그다음 落雷說이오、摩擦說은 山火의 原因으로는 가장 稀薄한것으로 볼것이다。

(寫眞은 千里天坪의 山火地帶)

陸海軍武官과함께 川越大使南京行
擧國一致의態度로써中國側의反省을促進
事件의根本的解決企圖

【上海七日發同盟】成都事件에對한 外交交涉의 具體的方策으로七日外陸海三省現地首腦部會議에서 決定하고 川越大使는 드듸여 數日中에 上海發南京에 드러가서 國民政府當局과 交涉을 開始키로되엿다 事件의 重大性에 鑑하야 佐藤大使館附武官및 喜多陸軍武官도 大使와同行하야 南京에이르러 陸海軍當局의 積極的支援下에 眞正한 擧國一致의 儼然한 態度로써 中國側의 反省을 促하고 事件의 根本的解決을 하기로되엿다

須磨總領事 張群氏와豫備會見

【南京八日發同盟】成都事件의 正式交涉에 對하야 川越大使와 交涉을 終了한 須磨南京總領事는 八日午前七時三十分 上海發歸任하야 今日中에 外交部長 張群氏와會見하고 爲先 豫備交涉을 開始하기로되엿다 中國側에서도 八日午前九時三十分 亞洲司長高宗武氏를 日本總領事館에 派遣하야 會見時間其他 諸般交涉을 遂하는同時에 日本의 態度를 打診하는등 자못 愼重한 態度를 表示하고잇다 今日의 須磨、張群會見에서는 爲先 須磨總領事로부터 日本政府의 根本方針을 說明하고 이어 對한 中國側의 態度와 今後 日中關係打開에 對한 中國側의 態度를 質問하야 全國的排日運動의 取締要求를할터인데 其結果 中國側의 態度도 大略 判明되리라고 觀測하며 期待되고잇다 그리고 川越張群會見도 이豫備會見에 依하야 日字를 決定할터이다

國策遂行邁進을 陸相再次强硬進言乎

【東京電話同盟】電力國策其他의 國策問題 閣議決定 重要政策이 國策項目으로서 採擇된以來 其具體化의 遲遲함에 陸軍은 漸次不滿이 濃厚化하고잇는바 寺內陸相은 陸軍豫算의 概算이 提出되는 十五、六日頃에 다시 廣田首相에게 決定된重要國策項目의 豫算化를 要望할뜻이다 卽 政府의 國策先議方針에 基하야 特히 重要政策을 閣議에서 決定한 所以의것은 採擇項目의 豫算化에 優先權을 附與하고 政治的難關 又는 計劃을 避하야 그實現을 期하얏슴에不過한다 그런데 政府가 하는態度는 爲先 項目을 決定하얏슴뿐으로 그後 舊態依然히 各省割據主義豫算分奪主義에 終始하고 電力國營案을 爲始하야 抽象的論議에 貴重한 時日을 徒費하고잇는 狀態이다 이러한 不斷的態度에 陸軍은 絶對反對요 國策遂行의 具體的方法으로서 行政機構의改革、省의廢合、航空、保健省과 貿易省設置、其他無任所大臣의 設置等은 거의 等閑히되여잇는實情을 極히不滿하야 廣田首相은 組閣當時의 聲明을 또한 想起할必要가 잇다고하고잇다 따라서 寺內陸相은 此等諸點에關하야 速히具體化하도록 首相에게注意를 喚起하는同時에 決定國策을 大演習前後까지에 豫算化하야 느저도 十月下旬 乃至十一月上旬中에는 豫算閣議에 附議할수잇도록 大演習前에 寺內陸相으로부터 進言을 試할模樣으로 이陸軍의 强硬態度는 注目할만하다

滿獨通商발란스 滿洲國側에不利

【東京電話同盟】滿獨通商協定締結以來 滿洲國內의 獨逸商社의 活躍이 漸次活潑化하려 하는데 協定成立後 六、七兩月間의 獨逸商品輸入高는 (單位圓)

六月	四三二、〇二七
七月	七七三、七二五
合計	一、二〇五、七六二

에 不過하며 一方對獨輸出은 大豆輸出의 激增을 보이고잇다 또 同協定에는 獨逸은 支拂額의四分一을 獨逸商品으로써 充當하게되여잇슴으로 滿洲國의 對獨輸出激增에 伴하야 獨逸商品이 此比例로 滿洲國에 輸入되지안는限 獨逸로부터의 支拂이停止되어 結局滿洲國政府의 負擔으로되는데 兩月成績에 依하야 보면 발란스는 滿洲國에 不利한 情勢에잇스므로 滿洲國에서는 外交部에 滿獨協定運用委員會를 開催하고 對策協議의 結果 現在의 獨逸로부터의 輸入品은 機械染料、寫眞器等이 主인데 歐米各國의 輸入品中 獨逸品에 代替할수잇는것은 今後極力 獨逸品으로하도록 特히 考慮하게되여 그對策은 協議中이다

不干涉調停委員會 九日부터開催

【倫敦八日發同盟】西班牙內亂不干涉調整委員會는 各國代表參加下에 마침내 九日부터 倫敦에서 開催키로 決定하엿다 이미 佛伊兩國政府는 參加키로 回答하고 葡萄牙政府도 亦是八日無條件參加를 回答하리라고 期待된다

八面鋒

◇不干涉案을 抛棄하면 歐洲에 危機가必然的으로오다고 佛首相이演說。

◇그동안에 波蘭과軍事借款을成立시켜 獨逸包圍策에 成功하는것이 有利하다는말이든가。

◇『人民戰線』이라는文句가 日本에서도 運動으로 나타나라는 形勢를보고。

◇全國特高課長會議에서 徹底彈壓方針을決定。

◇朝鮮總督府明年度豫算 四億圓突破는 確定의形勢。

◇豫算의增大는 反對할것업스나 一般的增稅、郵便料金增額、煙草價引上等은 愼重考慮할일。

成都事件에對한 積極態度要望 日本新聞協會서

【東京電話同盟】日本新聞協會에서는 七日理事幹事會를 開하야 成都事件에 關하야 左記決議를하고 首相外相陸相에게 傳達하는 同時에 川越大使에打電하엿다

決議 今回의 成都事件은 國民이 一齊히 痛憤을 禁치못하는바로 前後處置에 對하야 遺憾업기를 期할것은 勿論 그由來하는 禍源의 기플을 생각하야 斷乎그禍根의 刈除를決行키를 希望함

滿洲事變記念行事

第二十師團司令部第一回發表 今年은 滿洲事變第五周年에 該當하는바 京城府에서는 第二十師團參謀長杵村大佐統監下에 軍隊 在鄕軍人 靑年訓練所生徒聯合의 市外戰이 當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를 中心으로 行할터인데 夜間에는 府及在鄕軍人會京城支部主催로 府民館에서 步兵第四十旅團長 山下少將의 講演及映畵의밤을 開催하야 府民을 擧하야 當日을 記念하기로되여잇다 其他在鄕軍人會京城支部에서는 十二日부터 府內各所에서 映畵와講演을行할터이다

『大砲와飛行機를 西班牙로보내라』
巴里金屬勞働組合의罷業標語

【巴里七日發同盟】巴里金屬勞働組合은 共產黨支援下에 七日午後四時를 期하야 一齊罷業을 行하야 西班牙人民戰線內閣과의 連帶關係를 表示하얏다 金屬工二十三萬中 八割五分까지가 總罷業을 斷行하엿는데 다시巴里近郊의 機械工도 다함께 罷業을 決行 各工場前에 集合하야 大砲와 飛行機를 西班牙에 보내라고 絶叫하고 罷業은午後五時부터 爲先 中止하얏는데 佛國政府가 不干涉方針을 固執하는限 今後如何한 結果를 볼는지 豫測을 許치안는다

叛軍도勝利放送 首都進擊中이라고

【세빌리아七日發同盟】叛軍南軍은 이룬陷落後 猛然奮起하야 首都마드리드를 目標로 進擊을 開始하얏는데 叛軍세빌리아放送局의 放送에 依하면 叛軍左翼部隊는 六日 톨레도의 南方 타라베라附近에서 政府軍을 完全히 擊破하고 捕虜百五十、砲十門、戰車二臺를 鹵獲하엿다하며 右翼軍은 政府軍은 死傷四十二를 遺棄하야 潰走하엿다하며 또 北方戰線에서는 몰라將軍의 麾下部隊는 政府軍을 襲擊하야 機關銃四、彈藥輸送列車를 鹵獲하엿다고한다

政府軍毒瓦斯使用

【倫敦七日發同盟】七日세빌리아放送에 依하면 政府軍이 毒瓦斯를 使用하야 無辜의 市民을 殺傷하고잇는 事實이 判明되엿다하며 叛軍도 報復的으로 毒瓦斯를 使用할 意向이라하야 注目을 끌고잇다

瑞西政府 聯盟改組를提案

【쥬네브五日發同盟】瑞西政府는 聯盟當局에 對하야 聯盟改組에 關한 提案을 提出하엿다 그骨子는 如左하다

一、聯盟은 널리 門戶를 解放하야 非聯盟國의 加盟을 容易케할것

二、聯盟規約을 改正하야 制裁規定을 緩和할것 如斯히하면 規約上의 拘束은 輕減될것이다

一、瑞西의 永世中立은 聯盟에 依하야 確認되고잇스며 따라서 聯盟이 取하는 制裁手段에 參加하는것은 瑞西政府는 反對이다

定例局長會議
災害應急費辦出爲해 積立金制度必要
大竹內務局長의報告

八日定例局長會議에서 大竹內務局長은 慶北에잇서 水害狀況視察結果에 基하야 左와如히報告하엿다

一、被害는 主로 豪雨에依한 山地帶의 山崩에依한것이 大部分으로 極小河川의 氾濫에 依한被害도 만흠으로 今後에는 山林保護에 注力할것이다 大河川에依한 被害는 一、二를除하고는 거이 被害는업다

二、農耕不適地에 居住하는者가 罹災者의 大部分을 占하여잇슴으로 今後그들을 安全地帶로 移住케함이 急務이다

三、水防團의 活動은 多大한 効果를 擧하엿슴으로 今後一層 其助成에、努力할必要가잇다

四、道、邑、面에서는 從來 災害에依한 適當한 費用을 應急한 境遇에 責任支出할 制度로하고 實行豫算을 編成하고잇든바 其運用을 速히 融通케하기爲하야 積立金制度를 設할 必要가잇다고생각한다

九時卅分부터 第三會議室에서 總督總監臨席下에 開會하야 鐵道局長의 鐵道關係水害復舊狀況報告 山林農林局長代理의 報告 米穀自治管理法施行規則(勅令)은八日의閣議에承認되야 十五日頃施行豫定이라고 報告、大竹內務局長은 京城神社及龍頭山神社의 國幣社格昇格告示執行에 關하야 又慶北地方水害狀況視察報告其他、遞信局長도各府管內水害狀況及 復舊救濟等에 關하야 報告가잇슨後 十時半 閉會하엿다

林地區分調查經費 林政課서復活要求

農林局林政課에서는 明年度부터 十個年繼續으로하야 總額百五十萬圓計畫을 세워 林地利用區分調查를 實行코저 初年度分十五萬圓을 明年度豫算에 計上要求하엿든바 財務局查定에서 全部削除되엿슴으로 林政課에서는 森林行政上 不可缺의것이라하야 數日中에 復活要求를할터이다

防空法施行令 朝鮮軍司令部案成案

來議會의 通過를 待하야 卽時 實施하리라고 豫想되는 防空法은 朝鮮에서도 日本內地와 同時에 施行할터로 過般來 陸軍省案에 基하야 軍司令部及總督府各關係局과의 間에 慶慶準備協議를 行하야 同法施行에 際하야 特히 半島의 國防的地位를 强調한 防空法施行令을 公布하기로되여 軍司令部에서 千葉參謀를 中心으로 立案中이든바 最近漸次成案을 어덧슴으로 近近總督府各局에 提示하야 具體的協議를 開始하야 防空法의 成立까지에 萬般準備를 整頓하기로되엿다

朝鮮商美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一二 振替京城二五四〇〇八 電話本局(2)四五八八番

조흔家庭工業
最高의會社・意氣잇는大事業進路
第一 ... 第二 ...
株式會社

求職案內 文錢堂 安東縣五番通

朝報案內

日本一安い保險料 愛國生命
社員招聘 京城黃金町二丁目 愛國生命京城出張所 指導者 崔宇植

銀河水 銀河가 고무신
世界 世界 運動靴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社長 元胤洙 專務 金景鎭 京城府新設町一三七番地

直營支社長募集
有力한新進事業家大歡迎
固定月給金百圓給與
詳細規定請求次第郵送
京城府西大門入口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通信社員募集

生徒募集 (晝夜) 京城實踐簿記學院 京城府太平通

染料 原料 信用 卸商 本位
大壯洋行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 (市場入口側) 振替京城一二〇六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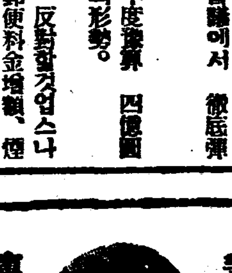
專屬 콜럼비아 半島가나흔世界的提琴家 桂貞植 博士吹込至寶盤
수-베니르 一枚
라이스의 冥想曲 一枚
방아라라 ... 一枚
콜럼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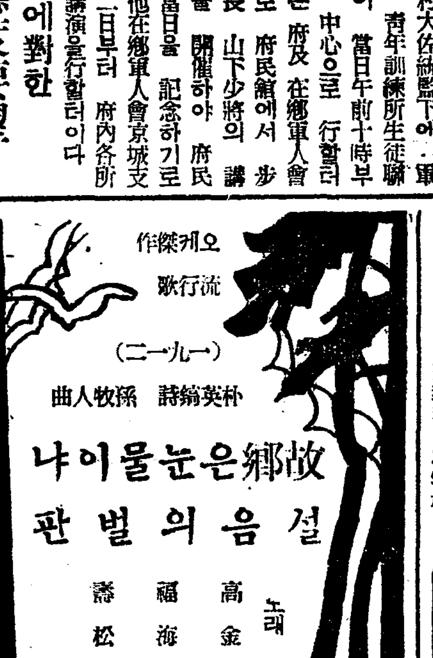
官認 大田寫眞學院 第七回 生徒募集 男女共學 大田府

機穀脫用力動一마-얌 稻麥兼用
能率絶大 機械堅牢 撰別優秀 使用簡易
型錄進呈
山岡發動機京城支店 株式會社

流行歌 오케傑作 (一九一二)
故鄕은눈물이나 설음의벌판
오케레코드

九月九日封切(五日間) 團成 朝鮮日報 京城販 電本(2)一五九七





食糧恐慌의 裏陽 浸水米로 僅延命 【五】

이곳의아프로의護身策으론 防築의改修에 잇다!

江原道災地에서 成仁基記

팔월이십팔일오전네시오분가량 도양양(襄陽)읍내 한여름비스드미흘르는냇내천(南大川)의제방이문허지며산과가튼 탁류는삽시간에 서문리(西門里)를비롯하야읍내를 중심으로 월리(月里)련창리(蓮昌里) 송암리(松岩里)포월리(浦月里)조산리(造山里)일대를 휩쓰러서 집이라는집은 모조리 떠내려보내며 쓰러트리고 사람이라는 사람은 전부집어생키여 물과명방을 안에 평화스럽든 양양읍 부근일대는 지옥으로돌변하야 곳곳에시체는 도동하여잇고 부모와처자 형제를 불르는 통곡성이 어즈러워 그 참상을 체험한사람의 말을빌으면 이것이 아마개벽(開闢)인가 보다고 생각켯다고한다 남대천의 거주를통하야은 양양읍내뿐만 아니라 그류의면십리도 전부휩쓰러서 서면(西面)이상평리(上坪里)북평리(北坪里) 내현리(內峴里) 서림리(西林里)현북면(縣北面)장리(場里) 법수치리(法水峙里)등지를 거이전멸식히고말엇다 이와동시에 각지와의 교통은전연뒤절되고 전신전화는 불통이되야 양양읍내는 글자 그대로 고도화되며 구원을 청할길조차 업섯다한다

◇

이번폭우로 말미암은 양양군전군의 피해는 구월팔일까지 판명된것만보더라도 인명사상이 일백사십사명 행방불명자가 사백이십팔명 부상자가 일백구십삼명이며 가옥피해는 류실이칠백사십일호 전궤가 이백륙십일호 반궤가 삼백구십사호나 되고 농작물의 피해만 약백만원에 달하야 전답의 류실매몰등을 합하면 이보다 멧곱이나큰 금액에 달할것으로 추측된다 행방불명자는 거의 모다사망하엿슬것이옥 작으마한 양양군에서 사람인은 오백륙십여명이 죽엇거니 되며 양양읍내는 거우혼수가 오백사십여호가 안되는동에서 양이백팔십호가량 내려가고 일백팔십칠호가 전부문허지거나 반문허지거나 하엿스니 매일안하여도 얼마나 이번풍수해가 심하엿다는것을 족히 추측할수잇슬것이다 리재민이칠천오백여명중 천수구백여명은 친척이 잇는사람은 열가 친척집으로 피난하고 남어지 약일천이백여명은 군청 경찰서 면사무소 보통학교등에 수용하고 주먹밥을 칠수미로지어 삼시입일 오전까지 계속하다가 이것도어느때까지 계속할수업서서 주먹밥 나누어주는것도 중지하고 식량이 전부류실되야 부족되는 로 가족의수를조사하야 리재민에게는 매인압해 이틀동안식량으로 칠수미한되식을 나누어주고 일반에게는 칠수미한되에륙전, 동보리쌀한되에 륙전, 보통미한되에 삼십이전식을밧고배급하야 겨우식량문제를 모면한후 장전(長箭)원산(元山)방면에 주문하야 쌀과좁쌀등 량식을몽급하고잇는동이다

풍수해가잇은 바로뒤에는 엇는사람업는사람할것업시 매일갓치다 그들은모다 입은옷밧게아모것도업고 또다가려 주먹밥으로몃칠을지내다 그러나 날이퇴고 물이빠지매 또다시 생활장정은 시작되야 전부떠내려보내고 터문이가 업는사람은 할수업지만 다소간 여유가잇는사람 또는 집이반쯤문허진사람등은도다시 사리나갈방침을 차리느라고 벽에 흙을 발르고구들을놓고치고 수천문의류를 내어널고하단들이다그러나리재민들중에은모든생활방법을 일허버리여 당장에 구호를바라야 할호수가 양양면만 하여도 오백륙십여호양양전군에는 약일천칠백여호나되다하니 매호에 다섯명식만치더라도 약팔천오백여명의 리재민은두달을팡깃고 룰에선사라낫스나 장차사려나갈길이 막연하야 주림과 추위에울고잇는 현상이다 당국자는직업 소개계(職介係)를두고 철도공사장에나 제방삿는곳에나 외지가지업는 리재민들을 인부로소개하고 잇는중이나 그일만으로는 네댓식구의생명을지탱하기는 곤난하다 그들은들의의 풍수재에 살어나서살은것을 깃버하든하든세상길이업습비관하야 도리혀 죽엇드러면고생도물을것을하고 한탄하고잇는참상이나 이얼마나 모순된 현상이며가엽슨 이야기인가입동은 날세는 점점 추워오고 아모것도 머둘것조차 업는그들은 다만사회의 따뜻한동정과 구제를밋고만잇다 관동팔경의 하나인 락산사(洛山寺)가잇고 오색리약수(五色里藥水)가잇는곳으로 일홈이날리든 양양은 이제야 전조선에서 가장 풍수해가심하엿다는말로 일홈이나게된동시에 사회의 이목을총집중하게 되엿다 그리고 양양읍의 갱생책으로는 결궤된 제방개축이 제일압서는 문제라고한다 언제나 양양읍은 옛자최를 가추려는고 무엇보담도리재민의 생활의 전도아말로 눈물겨히 동정할바이다

對岸의武裝黨員 國境線으로接近

警察、軍隊는緊張하야警戒中

對岸移住民續續避難

【咸興】 요즘함남도 경찰부에도달한보고에 의하면 함남대안지 폭도구소도리(十八道溝小道里)에 옴겨와서 목하강안(江岸)으로진격(進擊)중에잇는 공산군 일백오십여명은 사일오후두시경 동구모양동에와서 동지에 잇는유일한 학교인 선명학교(鮮明學校)에와서 부근에잇는 청소년들을 모아노코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잇다고하며 일면으로는밀정편의대(便衣隊)를강안에파견하야 조선내지의 친업을 도모하고잇다한다 호인서(好仁署)관내대안 반재동(半截洞)주민은 공산군어 습래하야잇다는소문으로 국도의 동요를 일으키고잇스며 사일오후칠시까지 이주동포동 십여명은 조선내 고거리(高巨里) 주재소관내에 피난하야왓스며 기타 우호민들도 모다 피난준비중으로 소란하가운데 잇다。

이러케 대안에잇는 공산군이 국경에까지 접근하야왓스며 곳곳에서 출생이나며 군대들이왕래함으로 장백현내강안 일대주민은 물론하고 조선국경방면의 주민들도 국도의 공포속에싸여잇서 대혼란을 정하고잇다

新事實의主犯 雨宮利吉押來

"石福"事件取調一段落

약이개월전부터 본정서에 검거당하야 취조를받고잇는 시내황금정(黃金町)이정목서복광업회사(石福鑛業會社)를 중심으로한금괴밀수출사건은 그간취조도의어 라숫맷고 방금조서(調書)를작성중으로 근일중에 송국될듯하다고한다 그런데 그간피게자로 명을쥐조중에의외 대량금밀수출한 세사실이 발각되여 그간그서에서 각방면에 판개인물로 현재 대련시정포(大連市浦町)에거주하고잇는 우궁리길(雨宮利吉)을수배중이든바 안동현(安東縣)방면에서 체포되여 그서에 압송되어왓다。 우궁을 기다리고잇든 그서에서는 그가 압송되어오자 곳취조를 게시하고 잇다。 사건의내용을 들으면 전긔 우궁은 소화구년이래 현재 이사건의관계자의 하나로 현재 그서에류치중의 작등복치(佐藤復治)의 후원으로 시내 명치정(明治町)에서 귀금속장사를 하엿는데 그때부터 서복회와 련락하야 금(金)에 은(銀)을 혼합한 불량한 금을 상해(上海) 천진(天津)방면으로 약십만원가량 밀수출하엿다고한다。

安全한住宅地로 罹災民을移住

이번慘害의原因은大概가山崩

滿洲移民도同時實行

이번수해에잇서 인명의사상이약칠천명을 돌파하야 실로미증유의참해를보이엇는데 이것은 대개산간벽지에잇는 농민이 주택지로서 극히적당치못한곳에 거주하기때문에 비가만히오면 산이문허지어 집이문허지고 인명의사상자를 다수내이게된것이중요한원인임으로 금후총독부에서는 농경지로 부적당한곳을 혹은주택지로 극히부적당한곳에거주하는것은 상당히 안전한곳으로 이전식히게할터이라한다

그방법으로는 현주지방에서적당한장소로 이주케하거나 또는 만주북조선등지로 이민식힐방침으로 금년가을부터 빨리이것의 실시를할작정으로 총독부에서 각도에통달할터이라한다

玄海灘에濃霧 德壽丸入港遲延

팔일아침에 부산에도착한련락선 덕수환(德壽丸)은 바다에안개가 만히끼엿기때문에 한시간십분이나 늣게 다이엿다 이때문에 부산잔교에서 떠나는오전일곱시의 림시급행렬차는 운전을 쉬고 오전열시반에 떠나는노조미는 이십삼분여나늣게 떠낫다

東海北部線 艱辛히開通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의 불통개소남애(南涯)두백(荳白)간은 륙일오전일곱시에 련성(連城)며 양(襄養)간은 동일오후한시삼십분에 개통되엿슴으로 칠일부터 외금강(外金剛)급고성은 되돌아운전하도록하고 삼일포(三日浦)전후는 약일키로를도보련락에 의하며 외금강과 고성간은림시렬차로련착하야 동해북부선은겨우 통하게되엿다

遝至하는 救濟金品……上으로부터 中央禪學院婦人들의 衣服製作光景과 製作된 衣服、上往十里町會 收集衣服、館洞町會 收集衣服、普信洋服店 義捐品

三南水災地에 誘拐魔가橫行

處女를꾀여서울온혐적잇다고 馬山署에서本町署에手配

참혹한 삼남수재지에 설상가상으로 싯커먼 유괴마(誘拐魔)가 횡행하고잇다 칠일아침마산부(馬山府) 김순덕(金順德)이가이삼세가량 되는 녀자의꾀임에 빠저 그녀자와함께집을 떠나서 열시삼분삼랑진(三浪津)발 긔차로 경성으로 떠낫다하야 마산서에서는 시내본정서에 수배하여왓다

죽지못해 애쓰는女子

서울왓다가몸까지버리고 龍山署에最後로哀訴

정랑에게 바림을바든여자가 사나이의마음을돌리도록 타일러달라고 경찰에하소연——지난여드렛날오전열시반쯤되여 룡산서(龍山署)에 나이 스물안팎가량돼보이는 어여뿐여자가 갓난애를안고나타나서 호소한바가잇섯는데 이여자는 경긔도양주군이담면동두천리(楊州郡伊淡面東豆川里)에사는 김정순(金貞順)으로 작년칠월에 자긔고향으로부터 살길을차저 서울로올라와서 남의집안잡자기로라도 드러가고저 애써보앗스나 뜻때로 되지못한 남어지 한강(漢江)에 몸을던지고저할찰나에 마침 부근을순행하든 산서원에게 구조되바되여 경성역(京城驛)아메잇는 어떤보행객주집에 드러갓섯다한다 그러하야. 거긔서 구차스럽운터 부사리를 해나가는동안 그객주집에서 함께일보고잇든 추급홍성군홍주면고암리(洪城郡洪州面古岩里)태생으로 전무복(全武福)(三)이라는 청객군이달게 꾀이는 바람에 정을 통하게되여 마침내 그의 씨까지 갓게되엿스나 이긔미를알어채인 그사나이는갑작이 태도를 변해서 그후자최를 숨기고 말엇다한다

이에 비련의 슬픈가슴을 부둥켜안흔 김정순은 매정한 그사나이나마 차저서 그의 협력을 매끼려고 일년동안이나 헤매이다가 수일전에야 그가원정(元町)이정목 십삼번지 곡야(谷野)라는사람의 집에서 고용사리를 하고 잇는것을 탐지 하고 여러번 차저가서 가티 살기를 애걸햇스나 종내 돌보지안흐므로 다시 자살할 각오를한다음 최후로 그가티 경찰에 호소해본것이라한다

大洋가지고 煙草詐欺

오일 오후열시오십분쯤에 부내의주통(義州通)이정목 일백칠십일번지 리승학(李承學)의담배가개에 약삼십세가량되어보이는 조선인남자가 차저와서동삼성(東三省) 대양(大洋) 십원권을내고피존두상자를산후 정원김상민(金相敏)이가 여메잇는사람에게 이지전이 조선내에서통용되는것이냐고 뭇는사이에 전긔괴청년은 담배와거슬음돈오원을 움켜가지고 경거장부근장작사혼데로 종적을 감추어 버렷는데 소관서대문서에서는 방금범인을 엄탐중이다

빼스傷人

팔일오전여덜시 십분쯤에 봉래정(蓬萊町)이정목세관지서(稅關支署)아페서 봉래정이정목이십번지에 사는 김영선(金永善)이가 자전거를 타고 한눈을 팔든중 봉래교에서 청엽정(靑葉町)방면으로 가든경전(京電)빠쓰에 부드처 전치약십일을요할상처를입엇다

非常災害時의 救護費積立奬勵

當局서具體案作成中

총독부내무국에서는 금후각도로 하여금 매년 비상재해의 구호비로 상당한금액을 적립식히게 하야 이번의 전조선적 대수해와가튼때에 리재민의 응급구제를 실시할수잇게하고저 방금이에대한 구체안을 작성중이라한다 이번 대풍수해에잇서서도 각도읍면(邑面)에서는 적당한 비용을 지출하기위하야 실행예산을 편성하야 구제책을 강구하고잇스나 원래각도읍면의 재해구제비라는것은 극히 소액에 불과한 상태임으로 일단 큰재해가일어나면 응급구호조차 할수업는상태이다 그럼으로 금후는 평시에 구호비의 적립(積立)을 하여둠이 필요하다하야 각도읍면으로하여금 매년 예산편성에잇서 지방비로서 재해구제금의적립제도를 실시케하야 비상재변에잇서 이적립금을 가지고 응급구제비로충당하게하는것이다

慶北農作物被害 一千三百萬圓을突破

경상북도의 농작물피해상황을 조사하러 그곳에 출장중인 산본(山本)농림국 기사로부터 칠일 농림국에 보고해온바를 보면 일천삼백이십칠만삼천구백륙십삼원에 달하엿스며 피해면적은 십삼만칠천륙백삼십오정보에 달하엿는데 그종별을보면 다음과갓다

▲水稻 九九五四千圓
▲粟 四六四千圓
▲棉 二五三千圓
▲菜蔬 二七七千圓
▲桑 一〇六千圓
▲果樹 五六〇千圓
▲陸稻 五六六千圓

開城各團體蹶起 水害救濟會組織

【開城】 이번수해로 전조선을통하야 일천여명의 피해자를내고 피해액이 일억원을 돌파한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은 개성부내 각단체에서는 이를 우리의손으로 구제치안흐면 안되겟다는성의로 지난칠일 오후여덜시경각에 부내고려청년회관에서 청년회대표를 비롯하야 유림대표개성녀자교육회대표 기독교회대표 각신문지국대표등 이십여명이모이여 수해구제회를 조직하고 위원을선정한후 구제금모집에 대한사항을 토의하고 동아흔시사십분경에 산회하엿다하며 죽석에서 본구제회장 리연교(李淵敎)씨가 금백원을 구제금으로내엿다한다 일반부민은 될수잇는대로 리재민에게보낼 만흔돈과 물품을 부내고려청년회관내에잇는 수해구제회로 보내주기를바란다한다

會長李淵敎 總務林 植 會計馬相谷 書記金載賢 救濟品募集委員 林漢榮外十四名

現場報告실고 海運丸歸還

德積島風害尙未判

루보=경기도 부천군 덕적도(富川郡 德積島)에서 어선 여덜척이 파선된 상황을 조사하려 륙일에 인천경찰서(警察署) 경비선과 경기도수산회(水産會) 백구환(白鷗丸)과 인천세관(稅關) 해운환(海運丸)과 인천해사출장소(海事出張所) 광휘환(光輝丸)등 네척이 현장에 출동하엿든바 그전부의 자세한 상황을 아직 알수업고 해운환만은 칠일밤 여덜시반에 인천에 도라왓는데 그배의 보고를 들으면 죽은 사람은 여일곱명 생존자는 일곱명 행방불명자는 내명이라한다

在神運轉手親睦會 救濟金品募集

【神戶】 신호조선인자동차 운전수친목회(自動車運轉手親睦會)는 창립한지 만이개성상에 운전수 조수 항오백여명회원으로 모든 사업에 꾸준이싸워왓다 금번칠일경 병고현경령으로 자동차조수는 전부폐지를당한이후 회원을처리하는동시 친목회원식대회를지난이시구일 오후칠시 대교공회당(大橋公會堂)에서개최하고원만히의친후 선정한호남 조선수해구제금품(朝鮮水害救濟金品)모집에 드러가 대대적활동을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피회하엿다하며 당석에서 피선된역원은 다음과갓다고 한다

▲會長 金文杰 ▲副會長 李 金 ▲總務 文俊 ▲書記 玉 ▲財務 金吉範

天氣予報

概況 朝鮮低氣壓은 滿洲南東部、關東州中部 揚子江下流에 잇다 七六四粍의高氣壓은 滿洲北部로부터 日本海에퍼지고 잇다 滿洲는개이고 朝鮮은흐리고곳곳에 적은비 흐린한개가나리고잇다 朝鮮海峽及西日本은개이고 東北地方은흐리기쉽다

豫報 京城地方은 오늘저녁은 흐리기쉽다 來日도 흐리기쉽고 때때로 적은비가나린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六度二
同 最低 二二度二
今朝最低 二二度九
今日正午 二七度三

運動競技

孫、南兩君

四日「나폴리」出帆

世界의마라손覇者孫基禎君과 南昇龍兩君은 그동안陸上代表들과三十七名과함께 歐洲各地를 巡廻見學中이든바 지난九月四日午前 「제노아」로부터 伊太利船『콘테로소노』號로 『나폴리』에入港하야 同地에서 또十二名의日本陸上選手가乘船한後 當日午後三時에出帆하엿는데 一行은 十月一日神戶에 到着할豫定이다 그리고同船에는 中國올림픽代表選手百三十名도同乘하엿다 佛國『마르세이유』를 先發한廉殷鉉、李性求、張利鎭、金容植、李奎煥諸選手는 올림픽本隊와함께 十月三日神戶에 到着할豫定이다

東京六大學野球日程

東京六大學野球리ー그戰은 來十二日부터 開幕되여 十月三十一日、十一月一日의 早慶戰을 最後로 五旬間 東京神宮球場에서 擧行할터인데 日程은 다음과가티 發表하엿다。

▲九月中 (第一試合은 正午、第二試合은 試合終了한뒤 四十分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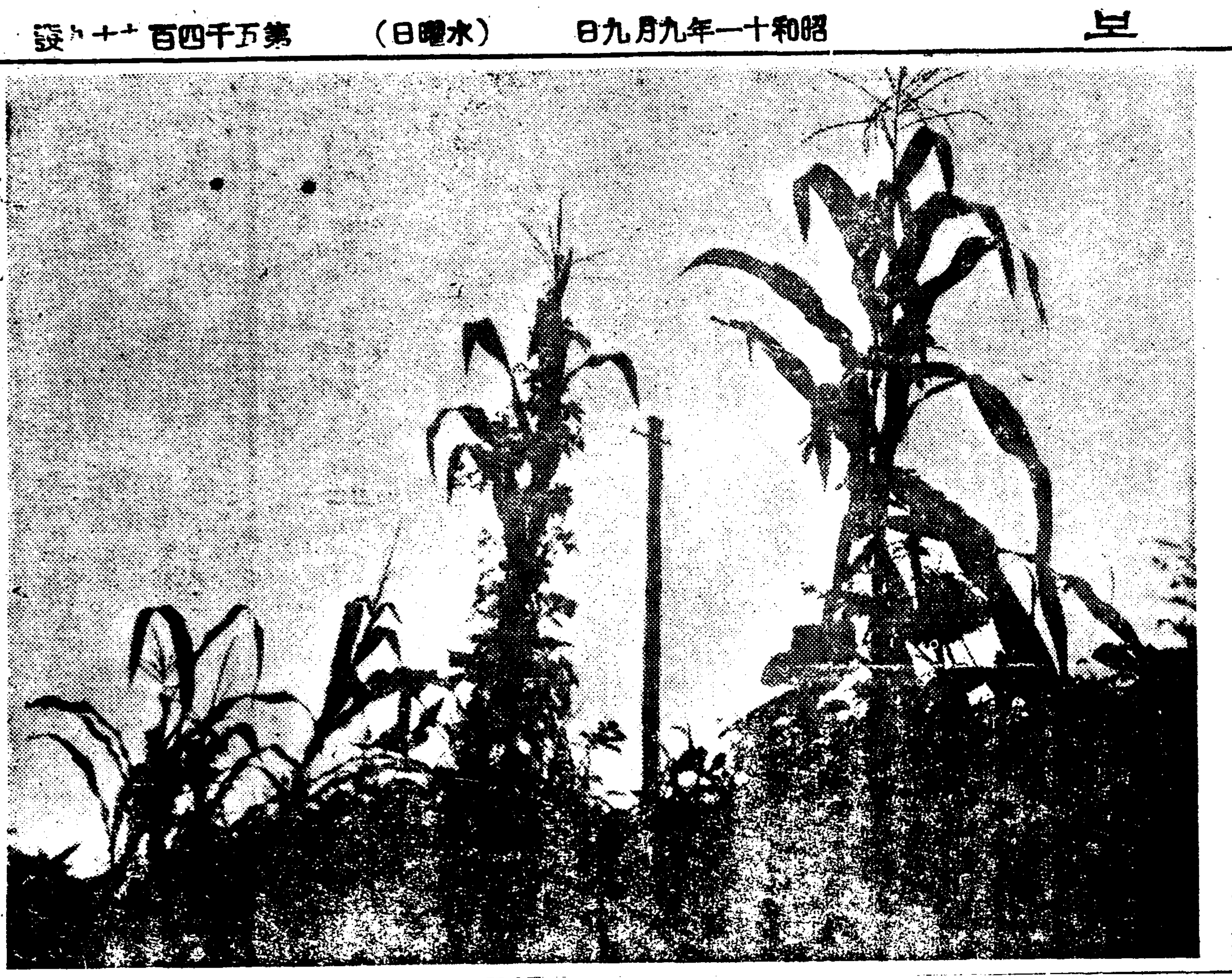
12日 東大―早大(一回戰)
同日 法大―立敎(一回戰)
13日 立敎―法大(二回戰)
同日 早大―東大(二回戰)
19日 明大―慶大(一回戰)
同日 東大―立敎(一回戰)
20日 立敎―東大(二回戰)
同日 明大―慶大(二回戰)
26日 立敎―慶大(一回戰)
同日 明大―法大(一回戰)
27日 法大―明大(二回戰)
同日 立敎―慶大(二回戰)

▲十月中 (第一試合은 午前十一時半、第二試合同上)

3日 法大―早大(一回戰)
同日 東大―明大(一回戰)
4日 明大―東大(二回戰)
同日 早大―法大(二回戰)
10日 法大―東大(一回戰)
同日 立敎―早大(一回戰)
11日 早大―立敎(二回戰)
同日 東大―法大(二回戰)
17日 明大―立敎(一回戰)
同日 東大―慶大(一回戰)
18日 東大―慶大(二回戰)
同日 立敎―明大(二回戰)
24日 明大―早大(一回戰)
同日 法大―慶大(一回戰)
25日 法大―慶大(二回戰)
同日 早大―明大(二回戰)
31日 早大―慶大(一回戰)

▲十一月中

1日 慶大―早大(二回戰)



金風을 모라온 ―― 오늘이 白露

今夜

白頭山探險映畵及報告講演會

午後七時半 於本社大講堂 【第九日】

眼科診療 醫學士 魚 溦 京城鍾路三丁目八〇ノ四

婦人良藥 特製 合月養調經丸

월경부조.하복요통.수족결랭.혈적.랭증.대하증

모든부인병을고치고.얼골에화색이돌며.살이찌며 윤택해지고.열새잇스며.귀운이등등해지는조혼약!

더위!장마! 한여름복개고 지친곳헤、요 지음생량머리 입맛부들때、 한제써봅시오 효력백배!

一劑 五圓

本舖 和平堂藥房

京城鍾路 電話本局(2)二〇一九·振替京城一五〇〇五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本町四丁目六 光州支社 支社長 金
黃海道海州邑南本町一六〇 海州支社 支社長 宋
京畿道水原郡邑南昌里七四 水原支社 支社長 李

京城之部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 本町二丁目 / 本町四丁目 / 鐘路三丁目 / 仁寺町 / 阿峴 / 南大門通一丁目 / 黃金町四丁目 / 鐘路二丁目
京畿道之部 代理店 仁川府外里一九〇
忠南之部 代理店 天安邑內
慶南之部 代理店 鎭 浦
黃海道之部代理店 黃海道長淵邑
咸南之部 代理店 端川郡汝海津 / 永興郡宣興面 / 漁大津
咸北之部代理店 咸興府本町二四 / 惠山線合水驛前

京城之部 特約店 京城府淸涼里町一二九
京畿道之部 特約店 仁川府外里 / 永登浦驛前 / 金浦邑 / 開城府都橋市 / 始興郡新東面平睡里 / 永登浦 / 龍仁郡南西面鳳鳴里 / 水原郡鄕南面發安里 / 漣川郡南面華山里土橋場 / 京畿道水原邑內 / 京畿道陵谷驛前 / 京畿道素砂驛前 / 永登浦町五三三 / 楊平郡龍門面新店里
忠南之部 特約店 大田府大東町四九 / 洪城邑壽慶園 / 成歡驛前安成商店 / 扶餘郡良化面草旺里 / 公州郡錦町 / 全義驛前 / 忠南溫陽溫泉
忠北之部 特約店 淸州郡米院面岐岩里二〇九 / 忠州錦町三八 / 忠州邑淸水町一二〇
全南之部 特約店 順天邑金谷里 / 潭陽郡大田面谷城里 / 木浦府竹洞木浦劇場前 / 海南郡邑內 / 群山府藏町一四五ノ二
全北之部 特約店 金堤邑內 / 井邑郡笠岩面大興里 / 井邑郡七寶面白岩里 / 茂朱郡赤裳面北倉 / 益山郡王宮面興岩里 / 全北裡里邑內南中町四六二
慶南之部 特約店 咸陽郡安義面錦川里 / 京釜線勿禁驛前 / 河東邑 / 晋州邑昭和町大明堂 / 晋州邑明治町 / 晋州邑日出町一〇九 / 晋州邑日出町六二 / 晋州邑日出町 / 晋州邑榮町 / 馬山府眼町 / 馬山府石町 / 釜山府寶水町義信號 / 釜山郡靑良面開谷里一六 / 居昌邑內 / 釜山郡凡西面斗山里 / 南陽驛前 / 南海 / 泗川郡西浦面初坪里 / 晋州郡邑旧治町五五 / 馬山府舊馬山市場入口
天和藥房

新井藥房 北島藥房 木村藥房 第一藥房 富仁藥房 富山藥房 富士屋藥房 南海堂 白楊堂 仁川堂藥房 徐光年 朴善錫 金鳳藥房 鶴仙藥房 嚴龍得 閔泳熹 三省堂藥房 永生堂藥房本店 池潤衡 德仁百貨商會 中和堂 淸一堂藥房 回生堂藥房 ハヤシ藥房 李鍾英 裵振瓊 李相璜 金佑鉉 李殷傑 金德根藥房 陵谷藥房 和春商店 徐順奉 神聖藥房 朴灯均 李秉世 宋千逸 高文寬 權明順 鄭寅九 溫陽藥房 華信藥房 朴綺陽藥房 錦北藥房 金禎泰 丁判燮 玉山堂藥房 千珍玉商店賣藥部 中一藥房 鍾東泰 陳善長 李廷鎬 柳用極 金永韻 朴鐘煥 大光藥舖 崔再錫 淸生堂藥房 金三珠 金元春 第一藥房 金成藥房 大黑洋洋堂 ツバメ藥房 李鉉秀 五行堂藥房 韋藥房 孫秀根 韓明東 松山堂藥房 華生堂 金鋼玉 金元春藥房 平和堂藥房

慶北之部 特約店 軍威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 尙州郡邑外南里 / 善山邑本町 / 義城郡丹山面 / 善山邑內 / 佛國寺驛前 / 大邱府達城町三〇 / 淸道郡華陽面松金洞
江原道之部 特約店 金化郡邑 / 江陵邑內 / 原州郡原州面花月里一〇四 / 金城驛前 / 原州郡富論面興湖里 / 洪川郡化村面君業里 / 平康郡福溪驛前 / 鐵原邑中里 / 元山府南村町二四 / 元山府廣石町一 / 元山府 / 甲山郡惠山鎭本町 / 興南驛前九龍里 / 咸南北靑郡下車書面寓泰市 / 咸南馬場驛前
黃海道之特約店 載寧邑內 / 鷄井驛前 / 鳳山郡德在面赤城里間坪 / 海州邑北旭町二五七 / 信川郡龍門面福隅里 / 延白郡彰德里 / 海州邑內北幸町三六五 / 安岳邑內 / 載寧邑內 / 南川驛前 / 沙里院本町通
平南之部 特約店 平壤府大和町通 / 大同郡斧山面中二里 / 肅川驛前 / 龍岡郡海雲面城峴里 / 龍岡郡海雲面龍井里 / 安州郡立石市 李觀信 / 平壤府南町四一 / 平壤府橋口町四〇 / 平南价川驛前
平北之部 特約店 寧邊邑內 / 蒲浦線香山驛前 / 龍岩浦農民共生組合 / 宣川邑川北洞 / 鐵山郡邑內 / 江界郡公北面香河洞 / 熙川郡邑上洞八五 / 宣川邑川南洞 / 新義州彌勒洞 / 龍館驛前 / 定州郡大田面雲鶴洞 / 雲山郡北鎭市 / 雲田驛前 / 新義州府眞砂町
咸南之部 特約店 新浦邑內 / 定平郡新上驛前 / 永興郡吾聖面三?里 / 豊山邑內市 義信商店 / 長津郡新南面上梅田里 / 新高山驛前 / 北靑邑 濟世局 / 北靑驛前 / 北靑郡仁東書面萬景市
咸北之部特約店 吉州邑內 / 城津港旭町 / 城津郡鶴南面禮洞 / 雄基港本町 / 會寧邑大正通 / 城津港旭町 / 淸津府新岩洞 / 朱乙驛前 / 明川邑明川洞 / 雄基上本町 / 雄基邑本町 / 羅南邑初瀬町 / 城津邑旭町 / 羅南邑生駒町 / 明川郡下加面酒浦區西花台市
海外之部 特約店 名古屋市南區中山町 / 鳥根縣美濃郡近見上村小原 / 間島龍井市大通路 / 安東縣平安通九丁目三番地 / 滿洲國三江省佳木斯三姓市南驛前

朴基寶 鄭壽八 金亨斌 金泰淑 新生堂藥房 金觀濟 姜八岩商店 鄭瑞桓 金化藥房 黃德源 金鳳商奎 文化商店 禹在根 申世均 丸寅商會 協成堂藥房 金元輔藥房 東明當藥房 岩坪商店 李昌旭 日天堂藥房 姜完洙 大盛堂藥房 金宗善 金鷄商店 李京芳 孔觀五 權弼福 吳官浩 林俊鎬 朴雲影 朴容大 秦和堂藥房 石川赤門堂 金錫容 金應朝 鄭鳳益 李亨植 活信藥房 柳原藥房 尹炳寬 康慶健 金泓官 朴探瑾 金興澤 福山婦人商會 安東商店 李穰松藥房 韓用俊 回春藥房 廣世藥房 東亞藥房 胤和藥植 天壽堂 春山藥房 救世藥房本店 鄭安藥房 春起藥房 金允吉 洪淳義 姜基順 曹惠四 金裕屹 五六藥房 姜完洙 讓星藥局 曹信堂藥房 李炳秀 迎春局 世一堂藥房 濟衆堂藥房 海東藥房 北一堂藥房 新盛商店 十字堂藥房 仁濟堂藥房 恒生堂藥房 益壽堂藥房 萬壽堂藥房 鮮壽堂藥房 孫龍漢 平和堂 片岡吉 永生堂藥房 吳昌 德昌藥房

동……리……어……구

태독도 무서운병 굿기는수가 만타

외치를 끄리는데도 일리는잇슬법 문제는『참출성』의 체질

갓난애기들이 흔히 머리나 얼굴에 헌데가 생기는데 그것을 태독이라고들 말합니다。태독에도 두가지가 잇서서 부모의 매독이 옮마 가지고 생기는것도 잇고 부모의 체질이 유전되야 가지고 생기는것도잇습니다。매독으로 생기는 것은 그 근본의 병을 고치지 안는이상 나흘 도리가 업겟지만은 체질관계로 생기는 것은 잘 주의해서 치료만 한다면 곳 나흘수가잇게 됩니다。보통으로 태독은 흔히 잇는 것이요 또 대단치안한것이라고 좀 생각하야 심상히 보아 버리는 경향이 잇스나 태독도 역시 병인만큼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업지안습니다。

사람의 체질을 말하서는어려서부터도 머리나 얼골에 무엇이나고 돗기 잘하고편도선(扁桃腺)도 잘붓고 긔관지(氣管支)의 염증(炎症)도 잘생기는수가 잇습니다 그런체질을 참출성체질(滲出性體質)이라고 한답니다 그런 애기들은 언뜻 보기에 통통한것이 건강하게보이지 만은 실상 그것은잘이 통통하여지 찐것이 아닙니다。그런 애기들은 피부가 몹시 약하야 조그만 자극(刺戟)에도 살이 고만 빨개지고 그래서 거긔가고만 헌데가 되는듯이 그런데가 번지고 번저서 온머리나 왼 얼굴을 뒤퍼 버리게 됩니다。태독도 결국 그러케 헌데가 되는것에 지나지 안습니다。부모로부터 유전을바든 참출성체질의 한개인 것입니다。

×

참출성체질의 애기네는 될수 잇는때까지 자극을 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그래서 땀이 나더라도 곳씻어 주고 기저귀가 저저도 곳 가라채 주어야 합니다 또 혈도나 혈실로맨든 옷은 멀깨시령이가 살을 자극하기 때문으로 그여시 조치 못합니다。그러니까 웬만하거든 고운 무명으로 해입히는 것이 조흡니다。그런이 아니라 비누를 칠하야 파반곤지르는 것은 아조 해롭습니다。목욕을 시키고 나서는 반듯이싯칼룹이나 아연화(亞鉛華)를 발러 두도록 하여야 합니다。그와동시에 기름진음식을 먹이어서는재미적습니다。어데까지 야채나 실과、그러치 안흐면 야채즙이나 실과즙을 만히 섭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아조 젓먹이 애기네는 저룰 그러케 먹이지 못하는대신 젓먹이는 어머니께서 그러케 자서야 합니다。우유를 먹이는 애기네들은 우유에다가 칼슘가튼 것을 타서 먹여야 합니다。

×

흔히 태독에 고약을 바르면 독이 안으로 들어 가서 도리혀 나뿌다고 하지만은 그러타고 그대로 고약도 안 바르고 내버려두어서는 말이 아닙니다。고약으로 외치는 하더라도함부로 하지 말고 의사를뵈어 가면서 하는것이 상책입니다。

물론 함부로 치료 하다가 헌데서 번식하는 균이 몸안으로 들어 가는 날에는 그야말로 병을 사게 되는수가 업지는 안습니다 벳날사람들도 그런 결과를 념려해서 고약으로 외치를 말라고까지 말한것입니다。그러나 적의하게 하면 아모상관이 업습니다。약한피부에 균이 번식하야 허는것을 고약으로 외치하는것이 조흔 치료방법 일것은 두말을 할 필요조차 업습니다。

×

그런데 당장 태독을 고치는이보담도 그체질을 고치야만 완전합니다。영양도주의하려니와 일광이나 공긔를 잘 밧도록 하면 체질도반듯이 고처지지 안는것은 아닙니다。요사이는 인공태양등(人工太陽燈)으로 체질개선을 도모합니다。그 역시 시험해 보시는 것이 나뿌지안습니다。

담배피우는개

담배잘 피우므로서 유명한미국로네치커트주의『쌀·오·마인』이라는개는 면칠전에 죽어버렷습니다、그개는 담배를 어데케 조화하얏던지 주인과 산보할때나 신부름하러 갈때에도 반듯이담배를피어물고 단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곳에서 선물로 들어온『파이프』가 수십여개나 유산으로 남어잇고 동리사람들은 애서해서 마지안는답니다。

할머니경기대회 —손자만흔분이일등—

요며칠전 미국로산쩰스시에서 세계할머니선수권대회가 열리엿습니다 이대회는 손자를제일만히둔 할머니에게 최고명예는『할리암부인』이 삼십사인의 손자를가지고 일등으로 당선되엿다합니다

家庭時論

수입은적은데다 몸치장에 큰돈

부당한 직업부인의 생활 분사는돈으로영양을돕자

요사히 거리에 녀성은 모다가 거이 선제가 약하다고 볼수잇습니다 그것은 통계에 명확히 나타나잇스니 여긔대한 대책이사회적으로 잇서야할것은 물론이나 녀성각자가자신의몸을조섭하고 주의하지안흔한 도저히해결될 희망이보이지 안습니다 지극히비근한례로서 직업녀성은 며게가 입하는시간이오레고 흉흔아모리케나 쓰게되는 반면에 수입이 그다지풍부치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반면에 녀성이기때문에 가질수잇는직업과 또한 녀성의 일반적경향으로서 정한한마음으로 몸치장을 정도에 넘게 하는수가 만습니다 백화점에서 일보는분들은 첫재 그얼굴의아름다운것과 몸치장으로서 손님을 끌게되는 경향이잇서서 각자가 경쟁하다 싶히 몸치장을하며 회사나은행에서 타자교를 두다리고 장부를거입하는분들도 요사히는 얼골화장과 의복의사치만을 힘쓰는분이 만습니다 흑지점하고 소비하게 물품가지는사람들도잇스나 대부분이이때한경향들을 가지고잇습니다

그러면 그들의수입으로보아 그만한여유가잇고 사치를 할수잇느냐하면 대개가 조흘리는 수입에 그만한 여유가업다고 보아서 그다지 그릇됨수적이 아닐것입니다 사치라는것은 그정도에 따라서 무리가업서야만 용허할수잇고 화장을 깨끗이하면 마음이상쾌하고 명랑해질것이나 무리한 사치와 화장을한다면 이것은 마음이 불편하고 흉사하물단장하기위하야 로동하며 사는 사람가리 되어버리는것입니다

그리하야 현대직업녀성은 모다가 건강에는 주의하지안코 몸단장을 힘쓰는까닭에 얼마안되는수입으로자긔몸을 돌보고 영양을섭취할만한 긔회를 못가지며사치끄레는 도한반듯이 시간의구결조가 따라단이는것이니부화한마음으로 건전한 생활을할수업는 까닭에자연몸이 약해지는것입니다

그럼으로위선자긔 직업상으로보아서 최소한도의몸치장을 하고얼마 안되는 수입이나마 떠케적은여유를 만드러서얼골외분을 사는대신에한주먹의 영양을 섭취하고시간의 무리를하지말며계한된 시간이나마 될수잇는대로 온케리용하야 수면을 충분히하며 무리를 하지안토록하는것이 조흡니다압날에 자긔가 자긔의 한몸을 위하고 장래를 보고 살라는 분이면 반듯이 이만한 등의는 가저야 될것입니다。

우리차지

"숨박국질"

돌이는 숨박국질 하느
라고 화초바테 업드렷
다가 벌한테 쏘여도
아못소리도 안헛습니
다。그러치만 순어가
차저내니까、으애ㅣ하
고 울엇습니다。

(글쓴사람 오장환)

사카린이 무서워

파는음식은 단맛에먹고는중독소동

요사히는 일반가정에서 설탕대신에『사카린』이라는 약을 만히 쓰게 됩니다 아모리 궁벽한 산촌에서라도 갓주가튼것을 만들때에는 반드시『사카린』을 너허서 달게하고 호인잔치가튼데는 실로 이약이 업고는 음식을 만들지못하는것처름 보급되여잇습니다 몃해전만하터라도 어느식골서 혼인잔치에 동리사람들이음식을먹고 중독되엿다는과사가난일이잇지만 이것이모다『사카린』중독이아니엿든가합니다

『사카린』은 설탕보담 단맛이약사백배나되는것입니다 조흔설탕과달러 그『사카린』의 단맛은오래도록입속에남어잇서서 찜찜한생각이나는것입니다

그런데원래『사카린』이라는것이 발견 되기는 어떤 사람이『석탄타ㅣ르』를 가지고 어떠한 약품을 만들고잇슬때 배가곱흐므로 일자리에서 빵을먹엇답니다 그빵이 평소와달라서 이상하게 단맛이나기에 그원인을 캐여보니 약품의제조공장중에는 반듯이『사카린』이나오며 그『사카린』이 손에무더잇다가 빵을 먹을때 함께먹은닷이라는것을 발견햇습니다

그다저 하약사카린』가루가 세상에도 류가업서서경은덕탁속에서 나오는것이라면 모다 이상히생각할것입니다

그러하야 의『사카린』은 보통설탕류와는 전연성질이 달라서설탕과가티 신체에 리로움이 잇는것이 아니라 영양가치는 손톱만치도 업스며 독성이잇는것이니 절대로 음식가튼데는 쓰지말도록 하는것이조습니다

백명이먹을버슷

『오ㅣ스트리아』의『헐차늘라』는곳에서는 요사히 큰 버슷이발견되엿답니다 그버슷은 노피가 한자며 갓이한자아홉치나되여서웬만한 우산은 쪽을 부칠수업시 크답니다 더구나 무기가 이편백몸메나되는데 이것으로 호항을 만든다면 백명이상이 먹고도남겟다고 야단법석이낫답니다

兒童劇 "매미잡이" (全一幕) (2)

南基薰

두사람『(숨넘어가는듯이)뭐ㅣ뭐ㅣ

공기 하ㅣ하ㅣ』

공기『그래라 나는 조금전까지도 너이들이 지금서잇는거기에도 잇섯다 그런데 지금너이들이 와서 나를밀치고서기때문에이리케 밀리어나오는거다』

인순『우리들에게 밀리어낫 공기 하ㅣ하하하우순소리들다ㅣ못것네』

영애『아니 우리자리 에서공기가 쫓기어 낫단말이지』

공기『별소리를하는게아니다 내가잇가부터 여기서 낫잠을자고잇스랴니가너이들이아모소리도업시 와서나를밀치고 그리고도한마디인사도업시 시침이를뚝떼고잇는법이어대잇니 참 너이들은아조배지못한애들이로고나』

두사람『하ㅣ 하ㅣ참 웃어죽겟네』

인순『아니 공기를 본대로인사를하면 엄마는지못이엇지만호나』

영애『아조 못난이다 못난이야』

공기 (성난듯이)『아니 못난이야 무엇이못난이나 응 무엇이 못난이야 그래 꿋이업다고 인사도업시 남을밀치도 아모일 업슬줄아니』

두사람『그럼 아모일 업지 엇절레나 엇절레야』(공기아프로 밧삭간다)

공기『올치 너이들이때도 조탄말이지』

영애『조흔것도업고 낫분것도업지』

공기『그래 너이말때문해라 나도생각이잇다』

인순 (영애를이)『세상에어엇서 아니엇절레나 엇절레야』

공기 (성서를노흔다는듯이)『나는여기잇다가 매미가오는데로 죄다조차버릴테니 그런줄아러라』

인순『올치 아조 나뿐맘만가젓고나』

영애 (거이가린)『그것참 아조 나뿌고나』

공기『아모리 너이가 떠들어도 인제는 소용이업다 자 어ㅣ디 봐라』

(매미가맴 맴하며 나온다)

매ㅣ『맴ㅣ맴ㅣ맴 아더리안에좀 쉬어가야겟다』(공기는매미가 오는것을보고숨쉬는듯이휘하며이리왓다 저리갓다하자 바람이강하게불어온다)

매ㅣ『어아ㅣ 이게무슨바람이냐 무슨바람이 아이 무서 무서 맴맴』(붙개치며다러낫난다)

공기 (웃내면서)『그것봐라 매미는 다러나지안니』

인순 (성이나서)『아조나뿌고나 그래 열서으매미를』(매미ㅣ가또나오다)

매ㅣ『맴ㅣ맴ㅣ맴 아 다리아퍼 좀쉬어가야겟다』

(잠깐아젓다 다시이러나 맴ㅣ맴하고 무대를 한바퀴돌자공기는 또매미가오는것을보고 휘하고 크게한숨을쉬자 바람은 강하게불어온다)

매ㅣ『바람바람아 이게무슨바람이냐 무서워 무서워 맴ㅣ맴ㅣ맴』(도달어나간다)

공기 (웃내는듯이)『자ㅣ봐라 봐 내말이 엇던가 하ㅣ하ㅣ』

인순『아조나뿌고나 애 영애야여기잇다가는 한마리도못잡겟다 그냥 가자』

영애『그래아조나뿌 그만다른데로가자』(매미채를 들고나오려한다)

공기『가든지 안가든지 너이맘대로들해라』

인순 (성이나서)『인제 또오게니』

공기『누가 겁나나 인제 또오너도 매미는 한마리도 못잡을 다그런줄아러라』(나무속으로슬슬드러간다)

영애『네맘대로해라 여기서 못잡으면 뒷못잡을술아니 인순아 어서가자』

(영애、인순 둘이서니가자 경숙이노래를 부르며나온다)

「노래」

一、잠자릿 잠자릿 잡히지안는
맴ㅣ맴 네소리 귀여운소리
어듸서 네소리 도둘리누나

二、올치올치 보앗다 저기잇고나
여기다 제가다 도안보이다
도봐라 도봐라 저기안저다

(왓다 갓다 이쪽 저쪽 보면서 자미잇게 부른다)

가정의화

임파선결핵인가

문 금년이십륙세남자인데 약사개월전부터 류행성 감모에걸이여이래 매일시신열도가나고기침과가래도나며 두통도잇고 가슴도아픕니다 의사에게 진찰하얏더니 신경쇠약이라한답니다 엑쓰광선 진단을 하얏더니 폐문림파선결핵이라한답니다 지금모병원에치료중입니다 만일 그럿다면완치할수잇겟습니까 (大邱一讀者)

답 진찰한의사로부터 신경쇠약증이라하고 엑쓰광선 진단으로 폐문림파선결핵이라고 말한다고요 무론신경쇠약증으로 폐병이시작될때도잇습니다 그러나 엑쓰광선에의하야 폐문림파선에 고장이잇다고 즉시폐병이라고는 할수업습니다 그것은 상당한곳으인재던지상하야보일것이나 기침이 가능하면 작용할수잇슬것이아닙니까다시한번자세히 진찰을바더보게하십시요 폐병이라도 그정도문제일것이니 그정도에 따러 완전히 나흘수잇습니다 료양원 해주급평성 함흥에잇습니다 자세한거슨、즉접그곳으로 무럭보시게하심이조켓습니다 (聖母病院長 朴秉來)

景品が二重に當る大懸賞

白粉과 크림과 化粧水의 綜合作用을 가진 가장 새로운 化粧料로서 젊은 近代的 女性層에 絕大한 人氣잇는 당고도ㅣ랑及 固形당고도ㅣ랑을 只今사시는분에게 빠침업시

藥用化粧水 風鳥チーゼル (壹本式) 十五錢짜리 드립니다

그리고 興味잇는 懸賞問題로 二重賞品이 當籤됩니다

タンゴドーラン (당고도ㅣ랑)

5人의 스타ㅣ는 누구누구? 이름을마처서요

答案쓰는法
우에 寫眞五人의스타ㅣ、名을左와 如히써보내십시요 (〇中에文字를너으시요)
日 本…高 〇 早
アメリカ…ジー〇・パー〇ー
ドイツ…マ〇ネ・ディ〇〇ッヒ
スエーデン…グ〇タ・ガ〇〇
フランス…シ〇ンヌ・シ〇〇ン

答案送法
答案에는반듯이당고도ㅣ랑의렛델(瓶에貼付한렛델을 물에적시여떼다)이던가固形당고도ㅣ랑의函中에說明書를添付하야住所姓名을분명히써너시십시요 (封筒에는三錢切手貼付할것) 正解者中에서抽籤하야 (警察官新聞社員立會) 左記의賞品을贈呈합니다

締切 昭和十一年九月三十日
發表 昭和十一年十一月上旬 本廣告揭載新聞紙上
送り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三丁目 株式會社 宇野達之助商會懸賞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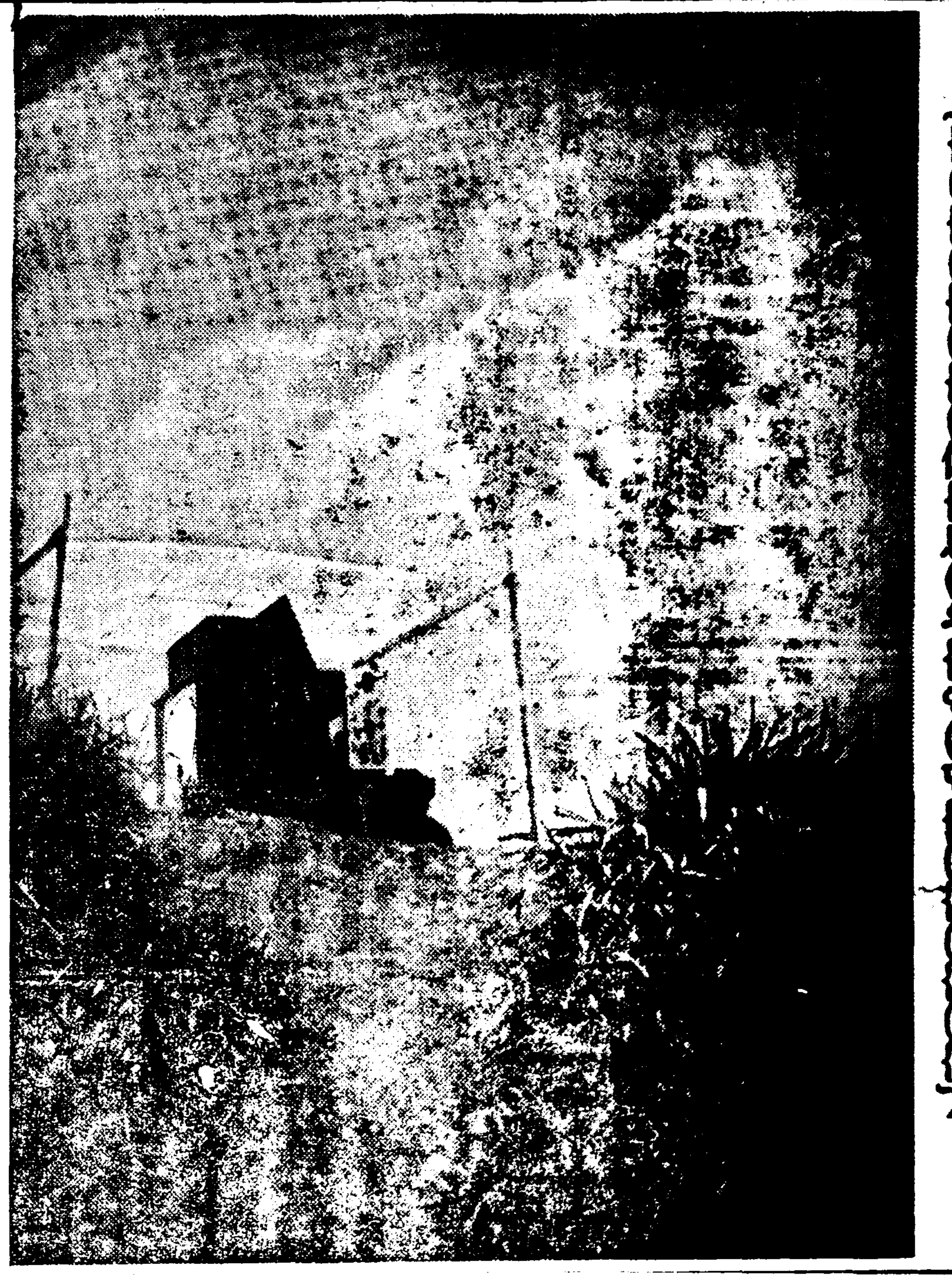
壹等 拾名 特選訪問着 ゲーン・パーカー好みアフターヌンドレス 絹夜具・洋家具セット・三面鏡
貳等 五十名 高級銘仙・レシユウ入本絹名古屋帶 新型旅行型・フランス人形
參等 百名 晴雨兼用パラソル・美術置時計 特製ハンドバッグ (以上各等一點自由御選擇)
四等 二千名 白粉下のいらないお化粧 ブルース (定價壹圓) 壹個宛
五等 二千名 藥用化粧水 風鳥チーゼル 壹本宛

TANGODOHRAN
タンゴドーラン七色
얼골빛에따라서 一層어엽부게되는
一般婦人에는……肌色
얼골하연분에는……白色
혈색파리한분에는……淡紅色
얼골거무른분에는……早晩色
얼골창백한분에는……爽健色
얼골붉은분에는……新時色
美的美容에는……明色
(正價各色一個) 三十錢 海外郵送料加算

藥用化粧水 風鳥チーゼ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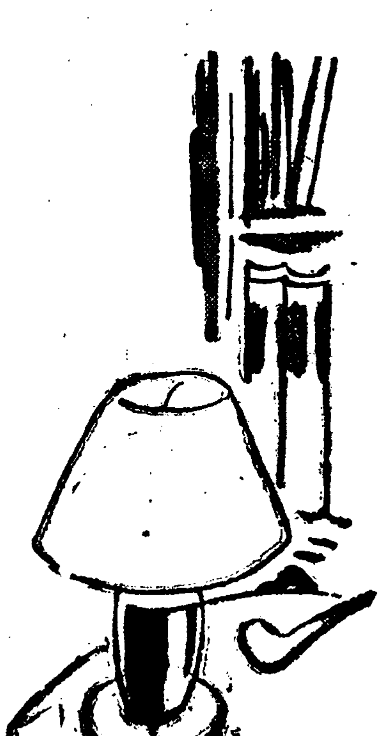
姉妹品 固形タンゴドーラン (七色) 各色一個 (¥.60)

スマートな容器入 高級パフ付



▼休息의언덕▲

學藝



文章論

現役作家들의伎倆

……그들의個性과領分에關한小考……

⑥ 安懷南

前揭 李北鳴 宋影兩氏의 文章을 引用한것은 惡文의例를 이 두분에게서 求하라는 意味로가지고 行한것은 아니요 이분들의 參考로 내노흔 數篇의作品속에서 事實 나는

……名…… 文章만한것을 고르다 엇지못하엿스며 더욱 李北鳴氏에게 가서는 이아래갈로 보다더 劣惡한 文章을 얼마든지 차저낼수 잇는것이다。玄海灘 저편의 林房雄이라는 사나히가 말하기를 『푸로레타리아作家로서 市民的文章의 重厭을 治安維持法의 그것처럼 體得하고 잇지못하다면 그런사람은 아무리해도 거짓 푸로레타리아의 作家로 是認할수박게는 업다。』하엿다。우리文壇의 푸로레타리아作家들은 全般的으로 藝術派에 屬하는 作家들에게 比較하야 文章上水準이 어렷언는處地인것은 나의獨斷이 아닌것인데 그들이 在來 文章에對하야 看過한嫌疑를 이르킨結果 새로운 地境을 開拓한인 까닭인가도考察하여 봣스나 그러치도 못하고 그들의 文章은 그대로 되다찌부러진 市民的文章이다。그들의眼目대로 文學의鬪爭을 하는것이나 小說을 쓰는것은 作文練習을 하기爲함은 아닐것이요 푸로레타리아派나

……藝…… 新派나 作家라는것은 다한개 아미純眞된文章을 爲하여진 文章을 武器로하야 비로소 文學의戰線에 參加하는것이라잇는다。

『말하지못하는 한개의 정색일망정 그는얼마나 자기말을해으들의 어고생을 겪고잇는고!하고 안쓰럼을 한가다 감희가 머리를 시조고 지내지자 어느름에로 다시 느껴지는것은 아직도 운반장의장한에서 벌벌떨면서 오늘의일을기다리는 수만흔 소들의 얼골이 떠올라 옴이엿다。』(嚴興燮氏作「힘」)

이것도 一見 整頓되여잇는듯하나 文法的問題까지를 들출만치 粗雜하다。깍고 점이고할테가만타。느껴지는것은 소(牛)들의얼골이 떠올라옴이엿다 라는것은 못아라듣를소리다。『한개의소』는 엿는데 作者도 勿論『한마리의소』들을통까닭이업스련만 이것은 氏의 語感의 魯鈍한것과 用語의混亂을

……證…… 明하는것이며「한개의짐생」햇으면 그것은얼마나해아할데를 놀라울게 人格을주어ㅅ그는 얼마나하고 마렷다『過歲』라는小說을 읽는印象도 그러하엿지만 氏의것은 첫재 文脈의갈피를 차저가기 어렵고 用語의 混亂 難澁한修辭等지저분하기 恰似 먹고남은食卓을 聯想케한다 文章의 第一初步인 簡潔이것이 氏의文章에는 가장缺乏하다 文章은 枝葉問題라하야 그것의 깍고 점이고 맥근하게하는 技術을 左翼評論家들은 貶毁할른지 몰으지만 조흔 內容에 훌륭한 文章을 象하면 더욱價値잇는 文學이 製作될것은 말할나위도업는 일이다。

金裕貞氏에게 對하야 말하고 …… 의 文章이 …的이라면 氏는 野生的인 文章이라 할수 잇고 前者가 冷靜한데 反하야 後者는 情熱이잇다。『소낙비』『산골』『심청』等을 읽다가 說話體로된 그의『두꺼비』라는 作品을 대하고 그文章의

……暢…… 達流麗함에 나는놀나기를 마지안헛다 압서 말한바와가티 우리는 當初부터 銳利한文章을 武器로하야 다各各 가지고 잇는것이지 小說家로서 作文生徒도 아닌바에 文章에對한 稱讚을 밧는것은 無意味한 일이라고 나는平素생각하여왓다。그러나 金裕貞氏에게 向하야는 별다른意味로 讚揚하여줄 理由가잇다。그것은 于先 먹드러진 말의魅力이요스타일의 와일드한맛이다。『안해』나 『산골』가튼 失敗된 作品을 가지고 金文輯氏에게그러케 好意를바든것도 오로지 言語와文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東京文壇의 小說手法에까지 실증이난 金文輯氏로서는 이곳에와서 單只 文章의容貌에 홀리고 만것이라고 안다。『朝鮮文學의印象』이라는 評論에다 氏가紹介한 『게집이 낫짝이 이뻐맛이냐제기할 황소가튼 아들만 줄대잘빠저노흐면 고만이지。에미가 낫짝 글렀다고 그자식까지 더러운법은 업스렷다 이 바루우리 똘똘이를 보아도 좀 똑똑하고 낄끗이 생겻느냐。비록 먹고도 대고도달라고 몰어귀처럼 뻴뻬기는 함힘정 참어둡어야말로 나에게는 아버저보담 할아버지 보담도 아주 뻘할수업시 끔직한 보물이다』

『안해』의 一節이며 이것도 金裕貞氏의 特徵을 玩味하기에는 가장조흔 引例이다。

白頭山探險의 科學的成果

白頭山에잇는 昆蟲의分布狀態

❶ 金秉河

白頭山을 지금부터 七年前에 豆滿江源으로 登山하엿다가 도로 豆滿江을끼고 나려온바잇고 今般朝鮮日報社主催로는 豆滿江을끼고 登山하엿다가 鴨綠江으로 도라나리어오게되어 남은한편가기가 어렷다하는 白頭山을 二回나 登山할 機會를 가지엇다는것은 나個人에게는 다시업는 기쁨으로 생각하는바이다。

白頭山을 朝鮮人으로는 「白頭山」이라고 自古로 불으게되엇스며 現滿洲國과 中國에서는 只今 長白山이니 老白山이니하지만 滿洲便에서는 威歌爾民商堅阿林이라고한다。

大韓疆域考를 풀추어보면 「盖按、白山凡有八名 曰不咸、曰蓋馬、曰徒太、曰白山、曰長白、曰白頭、曰歌爾民商堅、古今方譯之殊也」라하엿다 그러면 옛날에는 不咸山이니 蓋馬山 徒太山 太白山 或은 白山이라고 불넛다는것을 能히 알수잇다

白頭山은 南北이 一千三百餘里이오 東西가 六百里로써 高原가 最大 六百米나되는 玄武岩台地上에 突出한 東經百二十八度五分三十秒 北緯四十一度五十九分二十八秒 高가二千七百四十四米 頂上에는 周圍가 約四十里의 火口壁으로되어가지고 그속에 물이들어잇스니 이것이 龍王潭으로 所謂天池라고 稱하는것이다

白頭山頂上은 四邊이 일켜러 斜面岩으로 되어잇가 솟하지만 얼마나리어와서는 輕石(浮石)과 火山灰로 덥피어 우리가 생각하는 白頭山은 春夏秋冬 白雪이 積有함으로 그일홈이 생기엇다하겟지만 事實登山하고보면 輕石과 火山灰로되엇슴만큼 어느때 頂上附近이 白色으로보히는것이다。

이번登山에는 豫定이 天池로 드러가 天幕을치고 一夜를 宿泊할作定이엇스나 造物主의 惡戲이엇든지? 前夜에 暴風雨가 쏘다지더니 早朝에 頂上을 遠望함에 어제까지업든 白雲이 싸히엇다 그럼으로 不得已頂上까지만 올너가서 天池를 바라보고 도라나리어온것이다 天池에 말노 누가보든지 上峰에 俯瞰할때에는 悽愴한感이 떠올나 自然히 머리를 숙일만큼 莊嚴한것이다

前에 天池에 나려覗察하바를 回顧하건대 淡水는 靑色으로 周圍의 絶壁은 三百米 乃至 五百米의 嚴峻한비는 一筆難記이다。

白頭山은 어느때에 火山으로 噴出되엇든가? 官報實錄에보면 「宣祖三十年八月二十六日辰時 小農堡越邊北德者、耳鳴聲人不接足處、再度有殷死之聲、仰見則煙氣漲天、大如鼓抱之石、隨煙折出飛過大山後、不知去處」

그다음 肅宗實錄에는 「肅宗二十八年四月辛丑、咸鏡道富寧府、今月十四日 午時、天地忽然晦暝、時或黃赤、有同煙焰、腥臭滿室、若在洪爐中、人不堪熏熱 四更後消止 而至朝、視之、則遍野雨灰、恰似焚船殺者 然盡城府同月同日稍晩後、煙霧之氣忽自西北地、昏暗腥膻之臭 襲人之衣裾」

如此한 記錄을보아 白頭山은 一五九七年과 一七〇二年에 火山活動이 有하엿든것으로 濟州島漢拏山의 火山活動이 一〇〇二年과 一〇〇七年에 有하엿든것을 比하야보면 五六十年間의 差異를 가지고잇는것을 알수가잇다。

白頭山頂에잇는 天池는 周圍가 約四十里(假量)인것은 말하엿거니와 天池의水深이 果然얼마나 되는가 今般登山에 이것을 細密히 測量하라하엿지만 天池에 나려가지못하게 되어잇니만콤 目的完成치못한것은 섭섭한 일이나 一九三〇年 八月十一日 故 野口仁氏一行이 天池內를 測量하여본結果 中央의 最深部가 一〇二六呎 西山峰으로 西南方便이五八四呎 大將峰의岬 雞冠岩附近이二五〇呎 松花江流口附近이三三〇呎 赤壁岩前附近이 二八四呎로 測量調査한것이다

白頭山 廣大한 範圍를 차지하고잇스나 植物의 種類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적다고보겟다 金剛山의 植物種類는 八百을 헤아리고 잇건만 白頭山은 不過四百種이다

森林植物地帶 高地植物地帶로 區分하야 가지고 森林地帶에는 下部針葉樹地帶、中部針葉樹地帶 上部針葉樹地帶를 區別하야 볼수잇다 下部針葉樹地帶로서는針葉樹林 混交高地性落葉樹 下木群落、下草群落、溪側草地、中部針葉樹地帶에는 針葉樹林으로 下木群落、下草群落、針葉樹幾群落과 高原沼澤로되엇고 上部針葉樹地帶에는 針葉樹林으로 下木群落、下草群落、地衣群落으로 되어잇는것이다。

高地植物地帶에는 高山灌木地帶、高山草本地帶、地衣地帶의三分으로 볼수잇는바 高山灌木地帶에는 高山灌木林과 高山灌木下草群落으로되엇고 高山草本地帶에는 高山禾木莎草群落、高山草原、高山濕原으로되고 地衣地帶에는 地衣群落、蘚苔類群落下等藻類群落等으로 되어잇는것이다

森林地帶로서 下部針葉樹地帶로는 朝鮮落葉松을 主로하야 テウセンハリモミ(전나무)「エゾノウハミヅザクラ」(귀룽나무)等이混同되엿고 下木群落에「ホソバイソツツジ」(백산차)「クロマメノキ」(들쭉)等이有하고 下草群落에는「ヤナギタンポポ」(조밥나무)「アキノキリンサウ」(미엽취)「カハラナデシコ」(석죽패랭이꽃)「コナ」(소리나무)「チドリサウ」(대피울)「ワレモカウ」(되풀)高地性落葉樹로「テウセンミネカヘデ」(시닥나무)「テウセンウリハダカヘデ」(산저롱나무)「イタヤカヘデ」(고리쉬나무)「ヲガラバナ」(부게꽃나무)等의 槭樹와 「バツコヤナギ」(허랑버들)의楊類等이有하다

中部針葉樹地帶에도 大部分이 朝鮮落葉松이고「들축」을비롯하야 「백산자」等이群生되엇고「シラカンバ」(자작나무)가 混生되어잇다

나의關心事

暫定的逃避

李軒求

「기뻐하라、우리는 이젓다!」한 二千餘年前 希臘傳說의 英雄『마라손』王을 朝鮮이가지게 되엿다는 感激的史實이 近者에와서 우리에게 最大의 關心을 가지게하엿다 여기서 우리의關心은 希臘의燦爛한 文化로 도라가야한다 『올림픽』이라는것은 그들希臘文化의 生理的現實的表現의 一樣式이엿다 모든 文化가 綜合的으로 總括的으로 反映되는한面에 스포-츠의光榮도 그中에 한아끼엿슬따름이다 果然『마라손』만으로 우리의文化의 綜合的發展을 생각할수잇슬까? 孫君의 背後에 嚴然한 文化的勢力、社會的支柱 그것을 우리는 남에자랑할만큼가지고 잇는가?

집씨-의나라、鬪牛의나라 아니 그보다도『카르멘』의 나라로서 우리의記憶속에灼熱시킨『에조티시즘』의 版圖우에 只今무서운殺戮이 벌려지고잇다는 이事實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속에서陵辱한 流血의 淋漓를發見하는듯한 顫慄을 느끼다 그러나 이에따라일어날 그어떤一大旋風을 우리는 우리心臟속에 느끼고잇는가?

運命에翻弄되는 無能한自我의 幻影이 때로는 幽靈과가티 피로든 凶兆으로써 逼迫해오다 나의關心은 混線되야 한個의正常的通話를 許與하지안는다 오직 時間이잇는限 나는瞭解으로간다 가장最大의關心 直接的關心 이것뿐이잇다고나 해둘까? 여기 暫定的(?)逃避가 實現된다。

中國古代劇의 斷片的考察

❶ 金友琴

戲劇은 人類活動의 一種의本能이다。그러므로 人類生活上 가장 密接한關係가 잇다。戲劇과 生活은 어떤時間과 어떤空間을 勿論하고 그活動的表現이 아니된이 업다 그러나 그表現的內容과 手段은 時代에依하야 環境에依하야 모다 不同하다。이런點을 根據삼아 中國各時代의 戲劇을 考察하려한다。

中國古代社會의 戲劇活動은史的으로 考察함에 잇서 不幸히 中國에는 現代까지의 原統的戲劇史가 한卷도 업고 書籍에는 戲劇에 對한 記載가 稀少하다 唐宋以後 風土에 散佚한 記錄上에서 間或 零星한 斷片을發見할수 잇스나 唐宋以前에 잇서서는 考證할 資料가 缺少하다。

그것은 무삼緣故일는지!아마 文人들이 記載함을 不肯하얏슴인지? 그러치안흐면 幾次의火劫에 燒掉되얏슴인가 史載에依據하면 元來 詩、書、易、春秋、禮樂等六經이잇섯스나 樂經은 秦에와서 亡하야 後世에傳치못하얏다。그래서 筆者의自信에는 樂經이란 書籍中에는 必然코戲劇方面의 活動的情形을記載하얏슬것이라고 생각된다。그러므로 中國古代社會의 戲劇活動을 否認할수업스리라고생각한다。

이에 系統的史的參考書籍이缺少한 中國戲劇의 研究는 實로 飢荒、狀態에잇스니 가장 良好한方法은 오직戲劇原理에서 出發點을삼아 合理化 또는 簡易的으로 論述함이 捷徑이다。그러므로 筆者는 中國戲劇의 起源과 西洋演劇의 起源에 對한 詳細한內容은 일수업스나 條略의 差別이잇슬것이라고 말하고저한다。戲劇原理를 論究함에잇서 戲劇은 歌舞로서 起源이되것으로 아라둘必要가잇다 歌舞는 祭神에多幸하엿고 祭神에對한 記史는 禮樂等書上에 多載하얏든 볼수잇다。要컨대中國古代社會의 戲劇의 研究는 그歌舞의起源에 先觀하야 歌舞로由하야 祭神에入하엿고 祭神으로由하야 禮樂을 參考하게되얏슴을 알수잇다。

中國을 通稱하야 禮樂之邦이라한다。中國古代社會는 禮樂을 講究하야 治天下하엿다。樂記에

「……故樂行而倫淸、耳目聰明、血氣和平、移風易俗、天下皆寧」

이라것이 禮樂의中心이되엿다 이것을 積極的으로 解釋하면 藝術的變形이며 消極的으로 解釋하면 戲劇的替身이다。그러므로 中國古代社會의 戲劇活動은 完全히 그時代의 社會組織의禮樂과 維繫되어 一片을形成하얏든것이 事實이듯한다。이方面으로 考察하면 戲劇의起源은 宗敎的이다。왜그러냐하면 禮樂中에서 戲劇活動의資料를 探求할수잇고 또한 戲劇의原理的根據가 不無하다。

이로보면 吾人이探求하는바 雛形的歌舞는 不成型的戲劇이므로 中國古代社會의 戲劇活動의情形을 可히 代表할수잇다。

季節의除隊 ❷

東海岸 (上)

金瑢俊

七月二十四日 同伴한 金君이 잡어준 자리에 마주 안즈면서 車窓을여니 대동가를 비가 보기조케 쏘다진다。

「그럼 安寧히 댕겨오서요」

雨滴소리와 비소리 사이로 호되하게 들려오는 안해의 健康을 드르면서 우리는 東海에로 떠나가는 나그네가 되엿다。

나의 東海行은 처음이 아니다 昨年에도 가고 그럼개도 갓다。

가면 갈스록잇치어 지지 안는 東海바다의 그 맑고 고흔 물과 모래。

東海는 언제보아도 실지안흔 곳이다。嶺東의 景勝로 鏡浦亭이니 洛山寺니 淸石亭이니하는 이름노픈 入景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지만 東海岸一帶란 물과돌 그것만으로도 다른 어느곳과도 비길수 업슬만큼 곱고 아름다운곳이다。

安邊서 가려탄車는 맛그러지다시피 구울러간다。어느驛 어느村을 지날때나 東으로 저멀리새파-란水平線이 사러질대가업다。그 紺碧의 바다가 十里ㅅ길이나 멀지이 떠러저 잇는가 하면 어느듯 바로 내눈 아래 와서 흰 거품을 배거빼거뿜으면서 퍼덕이는 것이다 이럴때마다『바다여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소연 하려는고』하는 歎息이 제절로쏘다진다 바다는 車窓에서도 보인다。내 桑陸에서도 보인다。내 周圍에는 왼통 바다뿐인듯 십다

그러케 閑寂한 休暇處에는 풍겻 배마다 피어느러진 따리아 들 뺏앗다 못해 깡앗케 反射된다。

아아、이러케 雜亂한 旅行이 잇슬가! 비는 그치고 夕陽이 어스레하게 물들려 오듯한다。나의눈아페 어느듯 松田이 나타난다 老練한 솜씨를 가진 黑鬱深의 손으로數十年式 정성스리 길러낸듯 淡소한 소나무들이 편안히자리잡고 잇는 이 海灣 에메랄드의 소나무들 사이로 붉은 집웅이 보이다。

A氏의別莊B氏의別莊C氏의別莊 避暑地의 別莊들은 똥또깐 만큼만 지어노아도 華麗하게 보이나보다。

『下車이 나와슬까?』

汽車가 驛行을 바라보고 커-부를 돌릴제 燈불하나 업는驛頭에서 우리는 五分이나 머뭇거렷다。

E는 旅館에도 업다。온마을 다차저 보아도 업다。

E는 아마바다로 갓나 보다。

우리는 바다로 輕快한 스텝을 옴겻다。

讀者社交室

▲奔忙하신中未安하오나 陰曆丙辰年十二月二十七日이 陽曆大正六年某月某日이온지 本報讀者社交室을通하여 下敎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滿天下朝鮮日報 讀者諸氏에게 말슴드립니다 岩波書店『岩波哲學辭典』『同增訂版』『同小辭典』同文館『哲學大辭典』『全五冊』織田得能『佛敎大辭典』『縮訂版』『同縮刷版』左記書籍을 가지고게신분은 小生에게 賣渡하십시요。小生의가지고잇는 書籍과 밧구십든요。 咸南元山府南村洞五一 金東一

▲金泰鎬君아(新名秋覺) 지금은어데잇느냐 대체작년봄에 덧업는작별을지은후 무기명연하장 한상봇보면후 그다지도소식이업다는말이나 예날갓오해하지말고 만히양해하여라 그리고주소나좀 알려주면온하는생각이다 통천읍에 金兄이라면 알겟느냐 편지올때만기다리겟다 通川邑內 義兄

▲江原道高城郡이나 通川郡內에居住하시는讀者에게 뭇잡니다 海金剛沿岸에서 海金石이라고稱하는原材、裝石으로某種의 매이를製作하는盤石이 産出한다는 其産出하는面洞里名을 此社交室欄을通하야 敎示하야주시옵기바라나이다 忠南 一讀者

▲全鮮讀者諸氏께告합니다 生의友人金某는 尙今까지未婚中인바 中學二年程度以上(女講도好)으로 年齡十七歲以上二十未滿의 女性을 求합니다 當者는 基督敎界를希望하며 지금은 詩、論文을 多少發表하는씩씩한 크리쓰찬으로 中學三年까지단이고 早稻田政經講義를 客三月에 完讀修業한 二十一歲의靑年임니다 合當하면 곳通知하소서 (遠地歡迎) 咸南新昌港三三 金逸天

▲北滿寧古塔曉星生에게問하나이다 本人도文學을獨學으로修得하려하는데 가튼目的을세운우리로서 住所姓名을알으면되겟습니까 住所를下敎하시면 本人의아는데까지 先生의아는데까지 서로도와기를爲해서 社交室이나又는左記住所로 住所를下敎하십쇼 京義線南川驛前李甲八方 李孝卿

▲讀者諸兄에게問합니다 新潮社世界文學全集中(レミゼラブル(一·二·三)卷 罪と罰 寂しき人人外二) 計五卷을廉價로讓渡하실분이여사온지요? 다讓波하신兄이게시면 글에굶주린小生을爲하여同情하여주시지안흐시렵닛가? (但中古品以上程度) 文坪 寂寂生

▲李老載兄! 兄과갈닌지 三個年 그사이에 歲月은흐름과는 물을흐러슴니다 兄을追慕하아솜과저녁이 한두번뿐아니라 듣으니 忠淸北道어느곳을에서 精米所를經營하신다하오니 事實이온지? 本社交室을通하여알리여주시오! 咸北三長 金昌武

▲生은 普校卒業後 普文受驗을 希望합니다 讀者諸賢이시여 左記에가지를 詳細下敎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本社交室을 通해 下敎하여주시옵소서

一、受驗場所
一、科目
一、資格
一、最適한講義錄
一、日本內地와朝鮮普文出題目과特異한點
一、民、刑法은 日本內地나朝鮮普文이나共通합니까?
一、또民、刑法研究의最良의書籍名
一、行政法은 무슨書籍이良好한니까

龍仁郡遠三面龍郎里 李 僖

▲鄭永惠氏 咸興出生으로 昭和二年에 京城府舘洞에 居住하며 當時梨花女高普四學年에 在學中이든분 지금어데게신지오 社交室을 通하야 住所를 아르커주십시오 同窓生여러분中에서아시는분이 게시면 本欄을通하야 알려주십시요 一同窓生

新刊紹介

▲聖書朝鮮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外崇仁面貞陵里三七八 聖書朝鮮社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十五錢

▲三人童謠集 晩翔、夢笑、竹松 發行所 元山府廣石洞二ノ三 文化書院 振替京城一一五四〇番 定價二十五錢 總販賣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時兆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淸凉町 時兆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錢

▲國民法律 九月號 發行所 東京市芝區二本榎一ノ四七 國民法律社 振替東京一六七七六番 定價十五錢

▲童話 九月號 發行所京城府鐘路二丁目四五 童話社 振替京城五八七〇番 定價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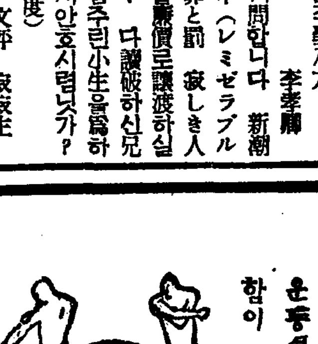
▲監理會報 八、九月號 發行所 京城府冷泉町三一 基督敎監理會總理院 振替京城一八三七三番 定價一部五錢

▲基督敎報 第七十一號(週刊)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압픈곳에 발느면 곳낫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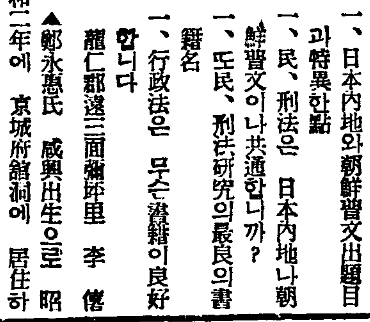
피곤함을곳회복식힌다……

운동경기중 또는련습끗해지역연습으로인한피곤함이 전부회복되여잇지안을때에는 퀸되손이추쳐못할뿐만아니라자거의기능은천적으로발휘치못하야결국「립」헌치쉬웅기를일케하나니 최근에는스포-츠맨의욕진니꼬람무기의하나로되엿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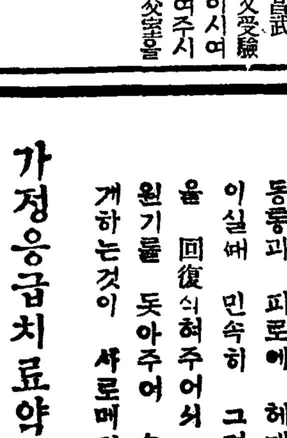
타복상새인곳멍든곳에……

몸전신에 바른 타복-족관치 스윙으로 끈육은硬直하여지고 관절이못고 동통과 피로에 헤매이실때 민속히 그것을 回復식혀주어서 다시금 원기를 돗아주어 승리를엇게하는것이 사로메지-루의우수한약효임니다



가정응급치료약으로써……

본제를 스포-츠맨뿐만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꼭 한개씩갓추워두시기바라오니 피부표면에 상처가업고 끈육심부와관절이 쑤시고-쎈질때 또는두통 치통 견비종 당된니는데 피부가 가려운병에 조곰 발느시고 문질느시면 즉시 병근원에작용하야 곳낫습니다



Salomethyl for Sports

陸軍承認藥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サロメチール
사로메지-루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連載野談 布袋記 (三) (不許轉載上演)
申鼎言 作 金熊超 畫

선의잇는편에 (二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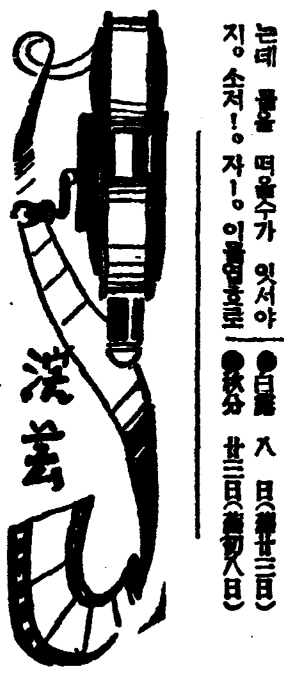
제후소저가 백운국선이 긔진맥진되어 넘어지는것을 보고 얼골빛이 파라케 질리며
「아이고 어찌하나 어찌해 국선서방님이 영영 맥이 끈허저서서라가 국선서방님을 죽인것은 그도적놈들이 죽인것이 아니오 이방정마진변이죽인것。아이고 국선서방님!。이죄만흔년도 이자리에서 목숨을 끈코 서방님의뒤를 딸어 모시리다。」
하고 몸을 날려 근두박질을치면서 통곡 통곡한다。
「아야。이리마서요。큰일을 당할수록 마음을 단단히 잡어야지요。소저까지 이러시면은 필경 세목숨이 이자리에서모두 살어저 까마귀와 여호의 밥이되고 말것。」

넘나들며 백운국선의 전신을분지를새 엽혀노힌 보퉁보퉁이가 우아래로 넘나드는데 거실거실거림으로 그보퉁보퉁이를 벗겨로 목차며
「이건 웨이리 거실거린고。보물이 조타는것이 필경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한말。이러케 한보퉁이가 잇서도 소용이업스니 그것이 무슨 보물일가?。원래 재물이란 것은 쓸때와 쓸곳을 만나지못하면 이보퉁이 안에든 보물과 갓거늘 어찌타 세상사람들은내남할것업시 그재물을 욕심내어의리를 이저버리고 큰 죄까지 지게되는고。」
하며 제후소저는 그보퉁이안에 잇는 보물이 갑스로처도 얼마인지를 모르것만 당장 백운국선을 구하는데는 그갑만흔 보

하며 김천도 목메인 소리로써 제후소저가 몸부림하는것을 말리며 뭄이나케 백운국선이 매달렷든것을 끄른뒤 자기의 것옷을벗어깔고 그우에 뉘엇다。
그리고 김천이 백운국선의의 복건을 글르며
「소저!。정신을 차리시고 국선서방님의 팔과 다리와 가슴과 손을 번갈러 힘써 문지르세요。」
하고 김천이가 먼저 손바닥을 짝펴들고 백운국선의 가슴을문지르기 시작하얏다。
이때 제후소저도 김천이가황황급급히 서드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여 백운국선의 수족을 문지르기 시작하얏다。
김천이가 백운국선의 가슴을 힘잇게 문지르다가
「허허。이산중에서 약을 구할수는 업지만은 물이라도 한목음잇섯스면 조흐련만 물도 보이지 아니해。소저! 물을 차저볼터이니 정신을 더채리시고 그동안 국선서방님의전신을 쉬지말으시고 힘써 문지르서요」
하고 김천은 물을 엇어 올차저 떠낫다。
이에 제후소저는 백운국선이 회생하기를 마음것 축수하면서 우호로가서는 가슴과 손을 문지르기도하고 아래로내려와서는 다리와 발바당을 문지르기도 하얏다。
제후소저가 이렴릇 우아래로

물이 화한한개만 못한것을 크게 탄식하얏다。
이때 김천이 이골작이 저골작이로 황황급급히 물을 찾다가 한곳에 이르매 큰로송이서고 그미테는 큰바위가잇는바 그바위를 약간패인자리에 물이 고여잇는것을 보게되엿다。
「허허。이산은 분명 물이 귀한산。그러커늘 이러틋을 보게된것은 과연 천우신조。더더구나 물냄새까지도 괴이하게 향긔로워。어어 신통하고도 감사한일。」
하며 김천은 그물이 분명 심상치아니한 물인것을 생각하고 크게 깃버하얏다。
그러나 물을 떠갈그릇이 하나도업슴으로 김천은 다시금답답히 생각하다가
「올치! 그짓되일。그저 한목움식이라도」
하고 엽혀잇는 큰나무잎을 여러을 따서 그입사구를 접어가지고 급히 물을 떠들고 달려갈새 그동안잇든곳으로 새고난흔 몰이 과연 한목음도 못되엿다。
그러나 김천은 급히 그물을 백운국선의 입에 흘려너헛다。
이와가티 김천은 나무입사구를 접어가지고 물을 길어나르고 제후소저는 여전히 팔다리를 주물럿다。
김천이 정신업시 물을 기러대다가
「아야。분명 이물이 범연찬흔 약물。그럼으로 잡숩게도하고 이마도 쓰서드렷스면 뚝조캣는데 물을 떠올수가 잇서야지。소저!。자!。이물엄흐로 뫼시고 가십시다。」
하고 김천이 두팔을 백운국선의 허리밋드로 너허 한팔로는 등을 바치고 도한팔로는 다리를 바처 고이들고 갈새 백운국선의 몸이 죽음도 흔들림이 업스니 이것은 온전히 김천의 힘이 그러케 세인때이엿다。

☆曆☆
九月九日(水)
陰丙子七月大(廿四日)
甲午·金·參·收
●祭祀에吉함
●白露 八日(舊廿三日)
●秋分 廿三日(舊初八日)



映畫界의珍客 스턴 벅의 會見記
安夕影

나는 그런意味에서 스氏를맛나는것이요 一個 보헤미안스氏를 보고자함을 避하는것이다
그것은 그의作品에는 대개가 데카단의 作品이아닌것이 만치안흐며 데드리히를出世를 시킨것도 여기에잇는줄안다
그는 편明敏하면서도 어듸지 모르게 猶太人가티 음산한데가 잇다 이것이 그룹데카단으로 가게하엿는지모른다
그가 朝鮮의美를 禮讚하엿지만 어떠한意味에서인지 分明히 解釋할수가업스니
「아프로 내 作品에는 朝鮮的인것이 잇스리라」한것을 듯고 나는 「코이드」나 其他 米國映畫가 東洋人을 取扱한것을 보고 朝鮮에 어떤것을 어떠케 利用할가가 注目되는바다。
그는 비오는 서울의 비오는 행낭뒷골을 진땅을 거러가는것이 조타고 하엿다。여기서 우리와 아조다른 感覺을 엿볼수가잇스나 여거서 그가본 서울의 행낭뒷골이 그의 映畫에 어떠케 나타나겟느냐는것이다。
나는 그가 서울에온것을 기뻐하나 이런意味로 기뻐하는것은 아니다
그까닭은 그가 거기에 愛가 잇다고한까닭이다 勿論 美에對하여서는 自己의 主觀에 맥길것이지만 自己들이 조와하는그들의 놀러를 우리는 美로볼수업는까닭이다
◇
그러나 나는 그러한 一面을 본다면 너무도 손님에게對한푸대접가태서그의 또한 조혼 一面을 살펴보자는것이다 그는映畫諸氏에게나 맛낫든사람의 質問을 一一히 應待하엿다
그러나 그것을내가直接드른말이적엇슴으로 내가드른 말중에 한마듸만을 더써보겟다
그는 映畫를 製作하는態度에 드러가서
「製作費가적다고 設備가업다고 슬퍼하지말라 그環境 그處地에서 自己들을 잘表現하고 製作者自身이 滿足한때는 그것이世界의편에게도 傑作으로 認定되라 그리고 먼데서 題材를求하지말고 가까운 발미레서 求하라 또 그리고 自己를 信賴하다 그러치안흐면 失敗한 作品이될다」
이런말은 우리가 꼭 새겨둘말이며 도우리가 實行해야만될줄안다
어쨋든 스氏는 世界映畫界의 巨人이 아님은아니다 그러나우리는 그의作品을通해서 技術을 배홀뿐이다
그의生涯는 最初에는 貧困이엿고 出世作品도 離魔이엿다。
그러나 지금은 조흔作品을 내지안흐면 안되는 조흔 環境에 處해잇다
그래서 저귀와 그의放浪日記는 自己作品의 洗滌를 豫防하기爲한 새로운 映畫題材의記錄인지모른다
事實 그는 冷靜한 사람임에 그를藝術家임에 틀림업고 그의 行動맘가틋것이 틀림업다고보게된다
그는갓다 어느해든지 겨울에 또오게되리라하지만 무엇하려올것이며 또藝術家에게 흔히 잇는 人情에 얼마만큼에 지나지 안는지모른다
이것이 내가 스氏에게서어든 印象의 一片이다 (끗)

映畫界挿話 업서진名物

어떠한사람을 勿論하고 아즉까지 한번도싸인을 어더본적이업고 해주적이업다는 格林의 名物혜프바ー느이라는 女俳優가어느날 撮影所食堂에서 점심을먹고잇는데 여러사람들의 보이는 어린아이가싸인해주세요 아주머니!。하고 그의여페당겨섯다 여페잇든 여러사람들은 아즉까지 한번도싸인을 해본적이업는 그가 이것을 어떠케處理하나。하고 注目하고잇섯는데 그는 아즉까지의 記憶을 아모아겸서 그아이의얼골에 빵긋대고귀여워하얏다고 格林에서는 名物이하나업서젓슴으로 話題가되여잇다한다

八日(火曜)
◇午後六時 노래공부(二) 一、海邊의少女…金泰午謠 玄雲曲 二、메밀꼿…朴世永謠 玄雲曲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外實演兒童多數
金德文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運命과迷信‖ 金晉燮
◇同八〇〇 歌謠 一、敎訓 二、併唱 (가)短歌 大丈夫 (나)唱劇調 春香歌 歌手 池龍九 李素香
◇同八三〇 변올린合奏 一、小品―여름에서…高橋功作曲 二、바람에 꼿에 잠자리에 三、荒城의달…瀧廉太郞作曲 四、宵待草 多忠亮作曲 五、小夜曲…井上紫能作曲 高橋(변올린)·안석봉
◇同九時 古談 ‖殺獄의明斷‖ 申淸吾 指揮 末岡克馬

第一放送
◇午後六時(大) 日本史 小笠原道生
◇同六時二五分(東) 青年時間 大阪國史劇研究會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坂本俊篤
◇同八時 琵琶 晉澤俊篤
◇同八時一〇分(金) 清元 清元梅美代子外
◇同八時二〇分(東) 三曲 川瀨里子外
◇同八時五〇分(東) 라듸오·레뷰ー 古川綠波一座

九日(水曜)
◇午後〇時五分 誦外 一、늘양 二、약산打令 三、琴山打令 韓仁學 柳開東
◇同〇時四〇分 뉴ー스
◇同六時 童話 高在天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가을의花草」徽文高普 李軒求
◇同七時三〇分 講演『第二回古蹟愛護데이開催에對한所感』總督府社會課長 金大羽
◇同八時(東) 管絃樂 交響曲 第四 伊太利…멘델스손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례오니ー드ー·크로비지
◇同八時三〇分 映畫이야기 西으로가는畫量 柳寅成
◇同九時 音律『靈山會相』 玄琴李彦稙 洋琴李承煥 奚琴池龍九 短簫洪斗憲 洞簫鄭載弼 杖鼓李章夏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英語會話講座(二ノ六) H·뷔아·렛드만 堀英四郎
◇同一〇時三〇分(東) 美容講話 千葉益子
◇午後〇時五分(東) 講談 小金井蘆洲
◇同六時(大) 童話劇 大阪衛生劇協會
◇同六時二五分 講演 佐瀨直衛
◇同七時三〇分(東) 講話 渡邊世祐
◇同八時(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大) 歸鄕劇 松竹家庭劇

十日(木曜)
◇午後零時五分(大) 빠이올린과管絃樂 빠이올린 콘랫드·리ー브레히트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 內田元
◇同一時一三分 婦人時間 朝鮮옷과다드미의利害 尹聖相
◇同六時 兒童劇「고기잡이간아버지」全一景 配役 玉順…金玉姬 小女一…禹璧方 小女二…羅金千 玉順의아버지…金倩燁 玉順의어머니…劉愼香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指揮 南雲 伴奏 劉永愛 效果 柳利景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外來語의消化問題 中央高普 卞榮泰
◇同七時三〇分 講演 指定古蹟에對하야 崔南善
◇同八時 平壤念佛外 一、平壤念佛 二、자진念佛 三、齊邊歌 四、開城難逢歌 五、방아타령 李眞鳳 金玉葉
◇同八時二五分 唱劇調 一、短歌―老人歌 二、唱劇調―赤壁歌 方應敎 鼓手 韓成俊
◇同八時五〇分 名曲鑑賞(레코드演奏) 빠이올린과피아노 스프링소나타作品二四…베ー토ー벤作曲 解說朝鮮音樂家協會 安讚秋 빠이올린 죤 마시아 피아노 불란쥬쉘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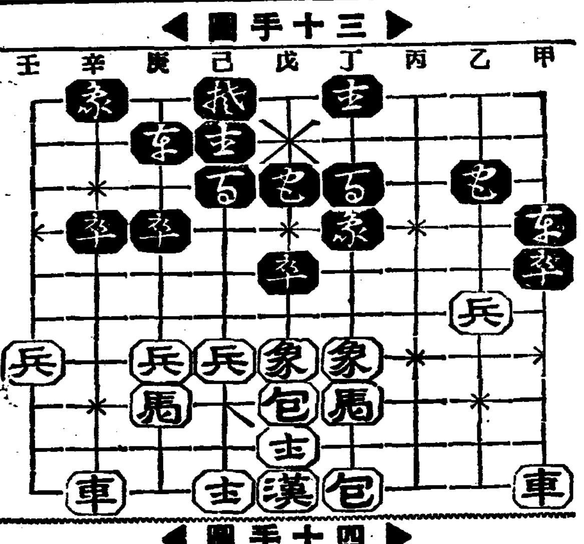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速成獨語講座(二十二) 登張信一郎
◇同一〇時三〇分(大) 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大) 빠이올린과管絃樂 빠이올린 콘랫드·리ー브레히트 大阪放送交響樂團
◇同二時 常識講座 角永淸
◇同六時(東) 이야기 郵便切手 村岡花子
◇同六時二五分(東) 心田開發 講話 孔子生涯 本多龍成
◇同七時三〇分(大) 講演과實驗 바람소리 小谷寬之助
◇同八時(大) 人形淨瑠璃 四橋子樂座서中繼
◇同八時五五分(東) 시네마오페렛타

구두갑시四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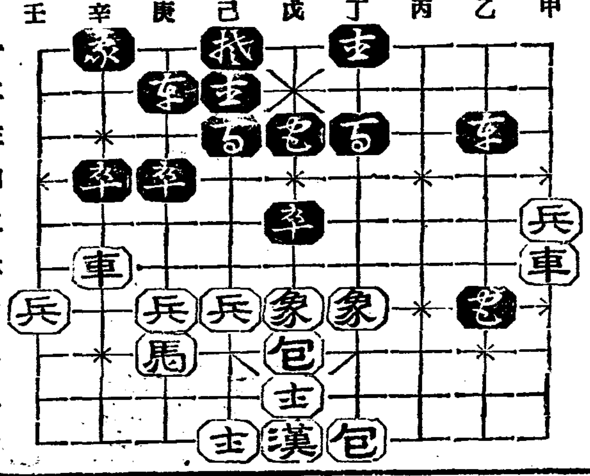
『쪼ー지·라푸트』는 구두를 第一조화한답니다 몸치장가운데도 이 第一 만히들기는 구두로서 全收入의 約四割이 구두사는데 消費되고 만다하니 趣味도 色色입니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四)
楚先手 金于石 漢 李在鳳

◀三十手圖▶



◀四十手圖▶



丁四卒―乙七
丁八馬―乙七打象
乙三包―乙七打馬
乙六兵―乙五
甲五包―甲六
乙五兵―甲五
甲四包―甲三
甲十車―甲六打卒
甲三包―乙三
辛十車―辛六

또다시업는好機! 이때를일치말고 꼭 仁丹을!

仁丹二十錢分으로 白米一俵가當籤된다

消化藥 口香料 仁丹

알기쉬운懸賞에應하는法

問題 只今가장人氣엣는銀粒仁〇
答案 右〇中에너허서 適當한文字를仁丹二十錢分外裝의안에記入하야四匁마다 三錢切手를貼付하야보낼것
答案送附先 大阪市東區玉造町 仁丹懸賞係
期間 自八月十二日 至九月末日 五十日間
抽籤發表 十月中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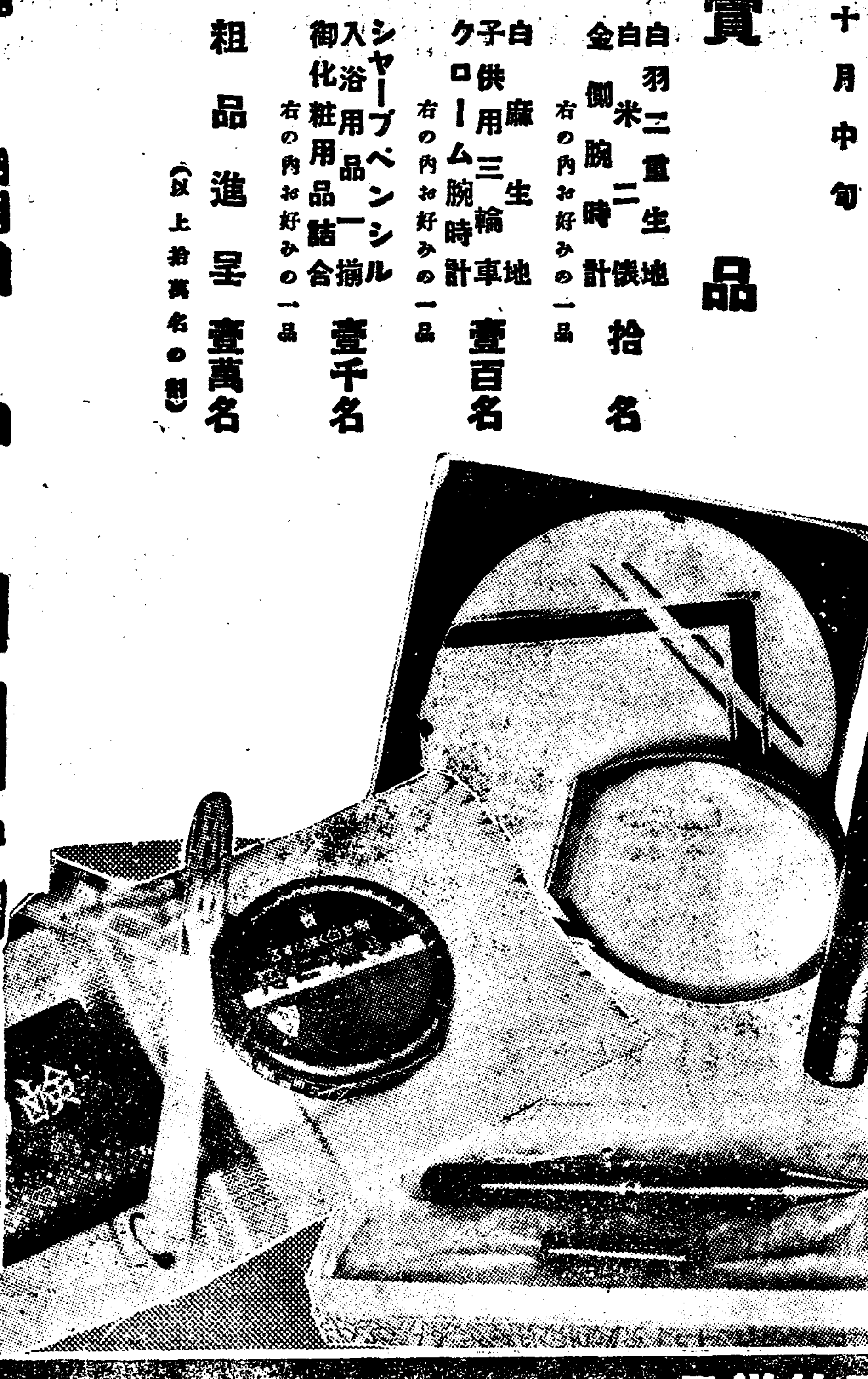
賞品
一等 白羽二重生地 白米二俵 金側腕時計 右の內お好みの一品 拾名
二等 白麻生地 子供用三輪車 クローム腕時計 右の內お好みの一品 壹百名
三等 シャープペンシル 入浴用品一揃 御化粧用品詰合 右の內お好みの一品 壹千名
四等 粗品進呈 壹萬名
(以上拾萬名の割)

銀粒仁丹은
비타민B와朝鮮人蔘을主劑로하엿스므로 夏季의常持藥으로서特히다음諸症에實用된다、
胃弱·腹痛·食慾不振·脚氣
疲勞·頭痛·倦怠·眩暈動悸
精力의減衰·惡疫豫防·痰咳

大阪·森下博營業所

一等賞品 白米二俵·金側腕時計·白羽二重生地 この內お好みの一品

二等賞品 白麻生地·子供用三輪車·クローム腕時計 この內お好みの一品



三等賞品 御化粧用品詰合·シャープペンシル·入浴用品一揃 この內お好みの一品

災害地慶南道內에 要救急者十萬名
交通通信復舊로 被害續々判明
人命死傷一千八百名

【釜山】경상남도내의 금번 풍수해 피해정도는 그후 각지와의 통신(通信)교통기관의 복구와함게 조사에따라 날로늘어가고잇는데 그비참한정도는 숫자상으로만 보드래도 일즉이 보지못한 참경이라하며 사일오후까지에 판명된것은 다음과 갓다

死亡者	五五五人
行方不明者	一五八
重傷者	一二一五
[illegible]	四六二八[illegible]
[illegible]	二、〇一九戶
[illegible]	二六、六二三
床上浸水	三三、四八〇
床下浸水	一、八八八
堤防決潰	五四[illegible]
道路決潰	六九六
橋梁流失	六八
船舶流失	一一
船舶破壞	八九六隻
畓流失	二、九八五
田畓流失	二七二九町步
畓浸水	四八七
田浸水	三三、一九二
[illegible]	二、二七八

그거니와 이외에 수차례정도는 전긔의 피해외 이와관련된 리재민도 약 십만명에 달하야 그중 당장 오늘 먹을것이 업시 곤경에 빠진사람이 만흐며 그들은 모진비바람에 나만불고 부모 사랑하는처자를 닐허이고 골육(骨肉)의 비애에 울며 또는조손전래의 전답과 가옥기타 가장 진용을 모조리 일허버리고 알몸만 남게되고 배암오거지은 동사가 풍우의 작해으로 전멸을 당하야서 생도들의 찬 비정에 빠저서 비참과 처주의 눈물을 흘리고잇는중으로 모자 그대로 새지을 연출하고잇는데 배울것업을것 상회들을 모조리 어데버린 그들은 상한곡과 열로다리 올급고 사리나갈 비이업서 오직 구제의손만 기다릴뿐이라한다

護岸工事陳情

【釜山】동래, 미홍의 대풍수해로 인하야 정관(正館)산, 중방(衆芳)을 山, 숲川등의 피해사항은 말할수업시도 현지의 퇴구나 동전인 배산(背山)동인 배산서원 전의 통장 판인 하회되었으며 하회의(下會의)남면간인 어데서 몸이나 현당이되야 그중리에서는 대책실행하야 지난사일에 류서우 류소우(柳小雨)화배(花陪)씨를 대표로 선정하야 공사비부조 청구교섭을 하엿다는데 군당국에 제일화으로 군당국에 하역다는 배우성의잇게 빨히하여달라한다

【慶南】경남동래군(東萊郡)동래(東萊)읍내에서는 고유하야 수류구판보조 하엿다는데 일반은 그 추이를 주목중이라고한다

조선말使用햇다고 六名兒童에 停學
海州郡下茄佐公普校의 處事에 關係父兄들大憤慨

【海州】보통학교(公普校)내에서 조선시간전(朝鮮前)에잇서서 아동들이 조선말을햇다고 당장에서 아동륙명에게 신입가의 정학(停學)처분을단행하여 학부형들은 파도한학교처사에 대분개하야 대책을강구코저 부형회를 소집중이라는사실이잇다 황해도 해주군가좌공립보통학교(海州郡茄佐公普校)에서는 조선말을폐지하고 국어를전용케하기위하야 금번이학기초부터 학교구내에서 조선말을하는생도에게는 정학처분을하다는규정을 세우고 조선말을사용하다가발각되는중 지난이일 오후로 륙번생도 오세헌(吳世憲)등오명은 집에 도라가지못하게되야 교실에서 자고 삼일아침 일곱시반경조회시간전에 근처에 사는동모리명규(李明圭)를만나 습편에서저자연히나오는 조선말로 교실에서 잔이야기를 하는것을 교장목촌(木村)씨가 발견하고 곳생도륙명에게 국어사용규정저촉(國語使用規定抵觸)이란 명목으로 각기일주일식 정학처분을하엿다는데 정학동지를바든각학부형들은 정학처분까지하야 상급학교입학과 그타여러가지에 장해를 반게함은 넘우나 파도한처사라

寫眞……(右上)元山銘石町婦人會幹部와救濟品 (左上)海岸通五六目丁町內組合救濟衣類 (右下)佛教婦人會幹部와義捐品 (左下)下洞村舊洞內組合救濟品(本報支局寄託)

悲運의新興學校
後援會를創立

【新興】함남도신흥군내에 오직 하나인 사설교육긔관인 신흥강습소는 만흔편의 력사를남기고 입학지원자가 격증하는 금번도 재정이 곤란하야 공사비부조 청구교섭을 세우여 군당국에 제일하여달라하는 배우성의잇게 기밀하여달라한다

至城의同情金品
坊坊谷谷서遝至
白米百叺을喜捨
長箭黃雲天氏特志

【長箭】고성(高城)지방에 희유한 대홍수로 말미암아 모든가산과 처자들일코 또는살고잇스면서도 먹을것을못먹고 죽을지경에 잇는것을참견한 장전항(長箭港)에서 유력한사업가 황운천(黃雲天)씨는 리재민들을 구제하기위하야 백미 백가마니를 의연하여 재해지 신북면(新北面)일대에 오십가마니와 고성(高城)읍내에 오십가마니를 직접보내여 배급하엿다 일반고성사회에서는 씨의 두터운 동정열에 대해서 칭송이 자자하다한다

本報平壤支局에서도 救濟金品을募集
全府民의同情을渴望

【平壤】우는자와가티 울자! 가련한동포들을 구하자! 오천오백여명의리재민이 사상유례업는 처참한경우에 울고도 피에주리여 신음하고 잇스니 노동과 가족전부를 일허버린이 가진 살림과 농작물 등의 피해가엄청나니 리재민의 중수가 구십만을 헤이거든 전고미증유의 상해의수해는 뜻기 만해도 몸서리치게하고 잇거니와 본사평양지국주최로 평양소년군(少年軍)소년척후대(少年斥候隊)가 기타유지들을 가두에 총동원하여 화신(和信)지점에서 긔부한 「떼라」만여매를 산포하며 부내전역에서 돈도조로 쌀도조로 의복도조로 동포를돕도조라는취지하에서 대대적으로 삼남리재민 구제금품(三南罹災民救濟金品)을 모집하기로 되엿다

동포애의 발로로 보내주는금품은 조선일보사긔(朝鮮日報社旗)를 꼿은차(車)에실혀 전부모아 가급적급속히 재지에보내기로햇다 십팔만부민들아! 우리의 처지에 찬동하여 아모것도조타 다소를 론할바아니다 분연히 일어나 동포애의 발로를 보히라

벌서金品遝至

【平壤】본사평양지국주최로 남지방 리재동포 구제금품모집에 「떼라」가 산포되자 부내각처에서는 구제금품이 몰주하고잇는데 류일맵으로안에 본사평양지국에 도착된것은 다음과 가트며 장대현소년부어린이들과 남문외교회 소녀전도대(南門外敎

會少女傳道隊)소녀들의 합론두돈식모흔 구제금이며 남산보통학교(南山普校)생도 김재영(金在泳)(二) 김강영(金江泳)(七) 남매가 재지의동모들에게 보내달나고가져온 교과서(敎科書) 참고서(參考書)잡기장 고무 연필등 실른눈물업시는 바들수업는 장면이 전개되여 이보든사람도 가슴이 터지는듯한 감격을 금키어려웟다

아모것도조타 될수잇스면 가을과 겨울에입을 의복이조타 밥지어먹을 쌀이조타 물론돈도조타 동포에를 표현할때도 지금이다 분연히일어나라

◇接受한金品(六日分)

▲章臺峴秋會少年部員一同 四圓七十錢 ▲南門外敎會少女傳道隊員一同四圓과衣服二十五點 ▲東亞藥院化學研究所止瀉散丸五百包 ▲南門町五金鐵元長女在泳(南山普校)五年生 敎科書二十五冊 ▲同氏長男 江泳君(南山普校二年生)敎科書十冊고무三個 鉛筆一個 ▲平壤實業組合二十圓 ▲和信平壤支店떼라一萬枚

衣類藥品配給

【高德】경북영덕군 강구항의 참

百包 ▲港町日高洋服店衣服三十三點 ▲中城韓藥局救急回生

本報支局에遝至
赤誠의同情金品
崔君의衣類十點을筆頭로 現金寄托도二十圓

【舍人】남조선수재지 백만동포의참담한 비보는 실로 눈물이아니고는 볼수업는정상임은 다시말할것업거니와 한숨기피가잇고 인정이잇다면서 그어찌 사선에선동족들에게 동정함이 업스랴! 지난사일 본사인지국에서는 곳고이포스타」를 붓치여 호신해진 재지참보와 수재동포동정금품의 모집을 알리이자 기다리고나잇든드시 로소남녀의 피털는동정금품은 그시로부터 답지하여옴으로 본사지국원은 총동원으로써 모집에착수하게되엿다 맨처음 차저온 사인리(舍人里)최석찬(崔錫燦)(二)군은 의복열가지를 내여노흐며 「변변치못하나마 재지동포에게전해주시오」하고 손수나서서 국원을도와 구제금모집에 분투하야 주엇는데 군의눈물겨운 동정심에는 실긔감탄하여 마지안는것이며 그밖게도 금은이 젊은이

◇現金部

▲金五圓也 盧碩禎

▲金二圓式 金禎夏 盧支局長

▲金一圓式 金俊燮 朴[illegible]

▲金五十錢式 崔泰[illegible] 吳[illegible] 崔泰泳 金振玉 崔[illegible] 金[illegible]

▲金三十錢式 李東華 文允彬 金林芝英 崔[illegible] 宋[illegible] 正鉉

▲金二十錢式 申[illegible] 李[illegible] 金在龍 韓[illegible] 申正[illegible] 林[illegible] 鮮于[illegible]

▲十五錢式 康仁洙 五顧 李[illegible] 成 ▲金十四錢 朴用章 ▲金十二錢 金[illegible]

▲金十錢式 朴[illegible] 林[illegible] 金永玉 金在文 金[illegible] 鄭[illegible] 明化商會 金[illegible] 鄭烈

▲金五錢式 李吉老 金鼎彬 郞李[illegible] 金[illegible] 張[illegible] 李[illegible] 朴永熙 丁[illegible]

◇衣類部

▲衣服十點 崔[illegible]

▲手巾一點 金宗成

現金合計金二十圓九十一錢也 物品合計 十一點也

(九月五日現在)

衣服四十五點
李龍化女史寄托

【元山】금번의 삼남과 강원도의 피해참상은 루보되는바어니와 이비절참절한 궁지에잇는백만동포의 정경을 참아 그저보고 잇슬수업다하야 원산부 남촌동 오십일번지(元山府南村洞)에 사는 리룡화(李龍化)(五○)녀사는 수재동포를 위하야 가족을 동원하야 신발(新發)부터 고향 잇던 곳에 (鄕)의 잇던 곳을 류실(流失)한 리재민(罹災民)에게 옷가지를 위하야 의복(衣類)수천매를 전달키로한바 잠사자 류실(流失)된 상칠수(床上浸水)가족에는 일매 식 배급키로 한다고한다 동포에를 몸을 만든 옷가지 주머니를 장사차 덜어서 팔목 주머니를 삭삭치 덜어서 팔목 (廣木)두필을사다가 가족을동원 하야 물론 류실이 잣가운 로 력업을 돌보지안코 손소 정성것 밤을 새여가며 의복 사십 오점을 만드러 본보 원산지국을 차저와서 비록 적은것이나마 나의정성의산물이니 현벗고 잇는 재지동포에게 전달하야달라고 의뢰하야왓다

녀사는 이번뿐이아니라 삼남과 함남의 일대를 엄습한수해가 잇슬때마다 터더지못한 주머니를 털어서 전긔와 가튼일을하야왓다는데 수년전 함남북수해시에도 의류백여벌을 지어서 재지로보냄 동정하기를 하야왓다고한다

四十餘圓多額
救濟演劇席上義捐

【稷里】루보=본보 리리지국에서는 금번수해구제를 목적으로하고 리리 한성편에기일동 주최와 본보지국후원으로 지난사오일량간 리리극장에서 수해구제 연주대회를 개최하엿든바 때마침 천기불순으로 그다지 큰 수확은 업섯스나 무사히 맛치엿다하며 당야에 일반관중으로부터 본지국을 통하야 긔탁한 수해구제금이 사십여원에 달하엿다고한다

趙東鮮氏特志
現金十圓을寄托

【海州】본보긔사를보고 금번수해리재민의 참상에 따뜻한 동정을보혀준이――해주읍 상정(海州邑上町) 백오십팔번지에사는조동선(趙東鮮)씨는사일아침 본보지국을 직접차저와 금번수해로 인한리재민들의 참상을긔피동정하고 사소하나마 리재민구제에 보태여써달나고 일금십원을 내여주고 돌아갓슴으로 본지국에서는 감격하야 본사를통하야 리재지에 보내기로하엿다

郭基奉氏美擧

【稷里】금번수해로인하야 삼남일대가만혼 피해를입고 도한수전외 희생자까지내이엿다는것은 세상이다 주지하는바어니와 비욕히 리근지인정주지방에도심한 수마로 절리피해를 입고잇는차 제에 리리읍영정(稷里邑榮町)곽기봉(郭基奉)씨는 일금오십원을 구제비로 희사하엿다한다

東洋一의清津港
第二次擴張計畫
七五萬圓中廿萬圓國庫補助?
明年中으론起工豫定

【清津】청진어가진 동양제일의 어항(漁港)은 지난소화팔년도부터 일백만원의 공비로 착공하야 삽년간에 제일고공사를 완성하엿스나 근래비약적발전을거듭하는 수산가공업(水産加工業)의 추세로보아 현재의 협착한 어항설비로는 도저히 막대한수 업을 소화시킬수업다하야 업망의 소리가 놉든바 지난번신 청부터 어항확장(漁港擴張)요망의 소리가 놉흔바 지난번신 춘목 중간의 부임을 마지하야 지방유지와 상공단체를 대표한 진정원이 상경하야 어항확장공사의 제일보조와 멋것진의 제한현안을 진청한바서 현안해결에대한 운동이 맹렬해진바 총독부당국에서도 그필요를 늣기고 될수잇는대로 보조할것을약속하야섯다한다 그후 총독부에서는 청진부에 약이십만원의국고보조를 내시하야 제반조사와 청진부당국의 의향을 조회하여 왓슴으로 늣저도 명년도에 화장공사가 시작될것을 간주하고 일반은 사례를 락관한다는바 확장공사비 전부는 칠십오만원으로 최초방하의보조를 원하얏스나 이십만원의보조를받드라도 부사업으로라여로 계획수행을 하기로한다는바 완성되는날에는 명실이상부하는 동양제일의 어항으로 청진의발전에 절대한 효과를 나타내일것이라한다

聯合勉勵會主催
雄辯大會開催

【大同】대동군과강동군 중화군에 어린이 그정에난으로 정결비운에 빠지게되엿다 이공옥그 판이 영해하야가를 그대로 류파령수여대하야 지난이일 오후 세시부터 동군내상대정 학교 사실에서 대동군 연합면려회 주최로 웅변대회를 개최한다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允[illegible] 朴永[illegible] 天[illegible]

曲橋川改修運動
各界網羅期成會組織
牙山地方의宿案

【牙山】충남아산군의 중앙인동 편류(貫流)되는 곡교천(曲橋川)은 해마다 하상(河床)이 놉아저서 홍수가나면 침수되는 농작지면적이 삼천정보에 달함으로 주민일만오천여명은 해마다 농작물을 홍수에 빼앗기게 됨으로 종래로 당국에 대하야 하천개수공사를 하여달라고 루차 진정하엿스나 지금까지일우지 못함으로 하동의 실현이 되지못함으로 군내각면각면 유지 유신여명이 지난사일 에 오천공립보통학교에 집합하여 곡교천개수긔성회(曲橋川改修期成會)를 조직하고 당국에 하천공사를 속히 실시하여달라는 진청서를 제출하기로 가결 되엿다는바 [illegible]의 일부가 동하야 긔독교청년면려 회 동양동면려회원을 조직하지 각지회에서 열심의 빛을 발하야 일반에게 가진 힘을 갓다 회고 고해야한다고 열심하야 지방인 회원외가 리속히 성혀하아달라고한 다

火藥不意爆發로
人夫三名重傷

【慶興】지난오일오후열시경영흥군인흥면유산리(永興郡仁興面)에잇는 조선어업개발주식회사(朝鮮漁業開發株式會社)경영

關北庭球王座戰

【元山】원산청우긔회(天主敎會)주최와 본사원산지국 후원의제 어회관북 개인정구대회는 지난 오、륙량일간으로 연기하야 개최하고저 하얏스나 여러날씨로인하야 다시오는 십구、이십량일로 한시부터 해성보통학교 코-트에서 열기로하얏다한다

玉宗地方水亂被害
死傷者가百餘名
農作被害도六萬圓

【玉宗】지난이십륙일밤 대폭풍우는 팔십로인도 처음보앗다는 참담한 현상이다 눈동사이업시 넘어드는 강물로 미처피난할여가도업시 집이어피저 열가족중에 이상명 흥이사명이 한꺼번에 몰사한것등 참혹한예화는 눈물이 업시는 들을수업는 참담한정상이다 지난삼일까지의 조사에의하면 옥종면에서만 사자십팔명 부상자백여명 로식가옥이 오십오동 전괴 류실이통 농작피해만이 무려륙만여원에달하다고한다

忠南道知事에게
鎭岩面民陳情

【扶餘】지난사일오후한시경에충청남도리지사(李知事)께서는 말영투과장(末永土木課長)과 석천호과기사(石川技師)를 대동하고 금번전후의 풍수해가 제일우심한 재지부여를 시찰코저 매부한때를 게기로 규암면민수백명은 규암도선장에 출영하고 이어 리재민의 시급한 구제책을 강구하여주고 도한 금천개수(金川改修)공사를 속히해서영 변아정하고 살수잇도록하여 달나고 라원하엿다하며 동일행은 규암(窺岩)구룡(九龍)부여(扶餘)일부의 재지현장을 시찰하고등 일귀청하엿다한다

地方人事

▲國耕夏氏(稅務署)會寧稅務署轉勤人事次 ▲高木悌吉氏(前天安警察署警務主任)靑陽警察署長榮轉人事次 ▲本報靑陽支局來訪 ▲田內類太郞氏(大田府內務課長)新任人事次本報大田支局來訪 ▲古加虎雄氏(忠南農務課技師)同上 本社元山支局來訪

愛慾의彼岸
【95】
李光洙 作
金康稷 畵

「우린어 사모하는 허련여사。이 발권이 내 일생에 어떠케큰 사건입니까。다만 내 일생의방향전환이란 말만 가지고 될것입니까。아닙니다。이야말로 예수께서 니꼬데모에 하신 말슴과가티 거듭난것입니다。이 몸이 나지는 이십륙년이나 되엇지마는 이 혼이난것은 바닷가에선 당신의 아페서입니다。

「이제 와서는 당신을 감히내 품에 넷겟다는생각은 영영 업습니다。그것은 크게 외람된생각입니다。도로혀 이몸의 당신의 종을삼어주시고 삼겟다는 원할입니다。감히 당신을 내 안해로 삼겟다는것이아니라 영원히 당신을 뫼시겟다는 생각뿐입니다。신령한 길을 가르처주신 스승으로 은인으로 당신을모시겟다는 생각뿐입니다。

「허련 여사。지금 생각하면 나

장이깨엿슬때에는 아직 젼등이 안나고 바가티 어두엇다。

이때에 준상의 머릿속에 번개가티 일어나는 생각은 허련이가 별시 해금강 바닷가에 아침 산보를 나오리라는것이엿다。 푸른 바닷가 휘 모래밧에 서서 해 돗기를 기다리는 허련의 모양을 생각할 때에 준상을 견될수가 업섯다。

「가보자 해금강이 여긔서 삼십리 자동차면 반시간」

하고 서거를 내어붓잣다。다섯시 설흔점。해뜨는것이 다섯시 오십분쯤。

준상은 뛰어나갓다。자동차사집으로 갓다。자는 운전수를 뚜들겨이르켜서 해금강으로 가자고 할때에 운전수는 눈을 비비며

「해드는것을 보라고 그래요」

하고 준상은 재촉하엿다。

「혼자세요?」

하고 운전수는 넘가긔에 좋을 너흐면서 물엇다。

「혼자요」

하고 준상은 자동차에 올라안젓다。이 운전수는 바로 얼마전에、이처럼 새벽에、어떤 젊은 남녀가 해금강을 가자고 서두르러 서 대우고 갓든것이、그 남녀가 몸을 마조매고 자살을한 동안에 이운전수도 경찰에 불려갓든것을 긔억하기때문에 새벽에 해금강 간다는것이 불길하게 생각한것이엇다。

「그러치만 혼자라면 괜찬치」하고 운전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운전수석에올라안젓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때에 들이 라고가던 젊은 남녀의 환영을 그려보앗다。

아직도 어두운 길을 자동차는 괴운차게 달렷다。준상은이 길이 대단히중대한 길 가리생각햇다。일즉 이러케 중대한길을 달려본 일이 업는것 갓텃다。늣지나 아니할까。독 바로 바다시가에서 만나질까、하고심히 초조한 마음으로 준상은 연해 한팔 내다보며 이 쭉으로 저쭉을을 자리를 바꾸어안젓다。

준상의 속주머니에는 밤에쓴편지가 잇섯다。준상은 몇번이나 그것을 따저보고 스스로주정은 생각이 낫다。

는 인생을 한홍물로 보아섯슴니다。떠원의 팔과가티 생존을 경쟁하는 이괴적 투쟁이 곳 인생으로 보앗섯습니다。남을사랑한다든가、남을 위하야 제 목숨을 버린다든가、하는것은 한허위가 아니면 아름다운말에 불과하는것으로 보앗습니다。세례를바든 예수교인인 내가、주일학교에 선생노롯까지하는 내가、방화이면 전도여행까지 하면내가 이러말을 한다는것은 실로 놀라운 모순입니다。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나는 천사이신 당신의아페 경건하게 자백하지아니할수업습니다。나는 위선자엿습니다。나는 양의 껍질을 쓴 이리엿습니다。이리만도못한 개엿습니다。속에는 이기적인 모든 더러운것을 품고서 거트로는 가장예수교인인체 하엿습니다。

「그러나、인제――그것은 큰 혁명입니다――당신을 통하야 내게 비추인 하눌시비초로 말미암아 내 가면은 벗겨젓습니다。나는참회의 제단아페 섯습니다。내할회를바다주시고 내머리에 손을 언저 나를 축복해주실 제사장은 다른아모런이가 아니오 오직 당신이십니다。」

안만 써도 쓸말이 끗업을것 가티아니하엿다。준상은 다쓰지도 못하고 곳 잠이들어 버렷다。

한시간이나 잣슬까 준상이 가

醜·惡·不快!
皮膚病을빨리곳치라!
一步進步된 皮膚良藥
ヒンター

버짐、무좀、음낭 습진、濕疹

其他 아이들의 땀띄等 가렵고 아픈 皮膚病손 질에 꼭 効力本位의 ヒンター를쓰시요

ヒンター는揮發하기쉬운水劑와달러 크림오로되여藥効持續的이고 조금의刺戟도업서皮下에잘吸收되여安全히皮膚病의煩惱를解消시킴니다

버짐、무좀、음낭습진、白癬、완선、진무른데、물사마귀、땀띄、쇠버짐、동상、벌레물닌데、기타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發賣本舖 守田治兵衛

各藥店에잇음

惡疫 惡疫!
傳染病의流行季!
입으로들어오는病菌에備하라!
消化·殺菌·救急의三大特長이잇다
効力本位懷中藥
寶丹

寶丹은다른一時的口中清凉劑와달너藥効本位의家庭常備懷中護身良藥이요。殘暑와가티、惡疫流行함!保健衛生에寶丹獨特의殺菌豫防力을活用하시요!

寶丹의活用은!
◇旅行散步에寶丹 ◇過飮過食의寶丹
◇惡疫流行에寶丹 ◇消化解毒에寶丹
◇疲勞倦怠에寶丹 ◇淸新劑로 寶丹
◇腹痛吐瀉에寶丹 ◇換節季에 寶丹
◇船車멀미에寶丹 ◇頭痛眩氣에寶丹

▲定價 金二十錢 金三十錢 金五十錢 金一圓 各藥店에잇음

本舖 守田治兵衛 東京·大阪

나치스公債政策

● 金融的背景內容

據込減少는 不安의 材料로 안되나 據込減少가 [illegible]을 이 [illegible]에 [illegible]한것이지 分明치안타 그런데 수年에 드러서 貯蓄銀行의 [illegible]가 매우 [illegible]하엿다 據込은 [illegible]하야 [illegible]엿스나 拂出은 그만큼 減少지 안엇스므로 據込超過가 [illegible]하고 三月에는 드듸여 八百九十萬馬克의 拂出超過까지 되엿다 그럼으로 이 [illegible]가 어떠한 事情으로 因한것인가 今年一月에는 二億馬克의 [illegible]證券이 發行되엿스나 이것이 어느程度까지 影響되엿는가라는 點과 [illegible](三六年九月[illegible])는 三月의 [illegible] [illegible]的 [illegible]으로써 [illegible]하고 [illegible]으로는 貯蓄銀行의 預金者(事業家)가 [illegible]하야 預金도 안하고 또 自己金融을 하고잇슴을 [illegible]한다 그러나 貯蓄銀行의 [illegible]로 이런事實이 잇다고 하드래도 큰 關係가 업다고 보지안흘수업슬것이다 어떠튼지 貯蓄銀行의 狀態는 公債政策에 對하야 決코 有利히 [illegible]되는것은 아니다 獨逸政府의 [illegible]은 特히 이點에 關心을 두는것도 [illegible] 고[illegible]을 할수가 잇다。

×

最後로 民間事業界의 資金需要增加에 對하야 말치안흘수업다 元來 이번의 增加는 莫大한 것이 아니나 [illegible]的으로 보면 公債政策의 見地上으로 보면 決코 조흔現象은 아니다 貯蓄銀行의 預金 其他據込의 一般減少가 이 事業界의 資金需要에도 若干의 影響이 잇슴을 말하고 또 普通銀行에 對하야도 그程度의 影響이 잇슴을 짐작할수잇다고 생각한다。

×

要컨대 國內景氣의 恢復에 伴하는 事業界의 資金需要는 昨年까지 一段落을 告하고 最近에는 도리혀 資金의 需要增加를 보힌다고 생각한다 이 [illegible]는 [illegible]的으로 信用銀行[illegible]의 增加로되야 안나타나기까지도 事業會社自體、銀行預金[illegible]現象은 이것을 銀行預金에 안둘려고 或은 政府證券에 [illegible]하고 直接自己金融의 方法을 取한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對하야 다음과 가티 말한다。

×

「一九三五年이 끈나고 二、三月의동안 [illegible]의 現行[illegible]는 分明히 인플레[illegible]의 [illegible]로 事業界의 信用需要가 新公債의 [illegible]와 競爭하기를 시작하는 [illegible]에 [illegible] [illegible] 政府로서는 [illegible] 信用增加에 依하야 金融市場을 [illegible]할 수잇슬것이다 그렇지만 [illegible] [illegible]의 信用을 [illegible]케할必要가 업지안흘것이다」

×

元來부터 이事業界의 [illegible]에 [illegible] 資金을 擴大히 [illegible]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illegible]의 [illegible]이 매우 [illegible]에 이미 政府의 公債政策에 이와가튼 一二三의 困難이 [illegible]되는 것이다。

【第十一表】 一九三六年貯蓄銀行據込超過 (單位=百萬馬克)

	一月	二月	三月	計	昨年同期
據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拂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據込超過	三四・〇	六〇・九	八・九	一〇三・〇	[illegible]

(終)

朝銀更生策으로 殖銀과合倂必至

大藏省當局에意向이잇다고 ◇……金融機關整備로

(寫眞…上은 朝鮮銀行 下는 朝鮮殖産銀行)

東四國의 金融機構의 整備에 伴한 朝鮮銀行의 改組問題는 滿洲國內의 朝鮮銀行의 撤收가 끗난 當事者인 朝鮮銀行當局[illegible] 愼重히 硏究코잇는데 松田朝銀理事는 四日大藏省을 訪問하고 川越大藏次官、和田銀行局長과 面談하고 朝銀의 處置에 關聯하야 懇談하얏다。

朝鮮銀行側으로서는 滿洲의 改行券撤收後는 北中進出을 希望코잇섯스나 이것은 旣報와가티 [illegible] 實現性을 失케되엿다

이에잇서 朝鮮銀行의 改組問題는 朝鮮銀行과 朝鮮殖産銀行과의 合倂의 方向에 有力한 解決點을 求하게되어 大藏省은 右兩行의 合倂에 關하야 具體的調査를 進하고 滿洲의 金融機關整備를 待하야 이것의 解決에 [illegible]의 出馬가 豫想되기에 至하얏다 右合倂案에 一致를 보기에 至한 理由는 朝銀의 滿洲撤退와 日本內兌換券發行權統一實現後 朝銀이 普通銀行으로서 改組하야도 이미 朝鮮殖産銀行이 商業金融其他 一般普通業務에 進出하고잇는 現狀으로는 이미 困難한 事情이 잇고 또 滿洲의 金融機關의 整備에 伴하야 朝鮮에서의 朝銀、殖銀의 倂立이 前記事情에 依하야 無意義化한데 依한것이라한다

水害程度續續判明

水產 產額大減退難免 漁船潰失等慘澹

水產朝鮮漁獲高의 大部分을 占領하고잇는 慶南北 全南地方의 風水禍도 極히 莫大한 터인데 아직 被害集計가 完結하지 안헛슴으로 그 詳細한 것은 알수 업스나 八日까지 總督府水產課에 報告된바에 依하면 人命被害가

	死	不明	負傷	計
全南	三	六	一四〇	一四九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二	―	―	二

等으로 昭和八、九年의 風水害時에 比하야 그例가업다 그뿐아니라 漁船關係를보면 더욱慘憺한 그狀況은

	全潰	半潰	計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二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等外에 漁具의被害도 全南에四千件 慶北에廿八件이잇서 아직 金額으로의計數는 업스나 數十萬圓에 達할모양이다 따라서 慶南에一千二百萬圓乃至一千五百萬圓、全南에九百萬圓乃至一千二百萬圓、慶北에五百萬圓乃至六百萬圓等의 年產額이 잇는 朝鮮의 漁場으로 年產額의 五分의二假量을 占하든 秋期漁業이 거이 全滅에 가가운 被害를 입엇다면 水產의 全體를 通하야 產額의 大減退를 免치못하게되고 同時에 數十萬의 漁民도 生途를 일코 彷徨케될것으로 年來로 漁業하고잇는 水產界를 爲하야 크게 念慮되는바이다 이에 對한 救濟策으로는 一般救濟策에 準應하야 自力으로 復舊치못할者에게는 國庫로 漁船等復舊資金을 補助하는 外에 水產組合等을 通하야 適當한 期間을 두고 低利融資를 하야 迅速히 復舊케하리라고하나 復舊까지는 相當한 時日을 要할모양이다

農作 慶北一道의被害 一千三百萬圓으로

第二次의 今番 風水害로 因한 農作物의 被害狀況은 方今各地에 總督府農林局에서 直接出張調査中으로 그 額數는 莫大한 程度에 達하리라고 觀測되고잇는 中 慶北方面에 出張하엿든 山本技師로부터의 報告에 依하면 慶北一個道만도 實로 一千三百萬圓이라는 莫大한 數字를 보이고잇서 慘害를 낸 以外의 深刻한 被害에 모다 驚異하고잇는데 即 前者第一次의 中部地方 京畿 忠南北三道에만 對하야 五百二十五萬二千餘圓의 被害面積 四萬四千七百餘町步에 比하야 一千三百餘萬圓에 達한다면 江原、慶南 全南等地의 被害를合하면 더욱 놀날數字에 達할모양이다 慶北道內被害에 對하야는 田畓作物別로보면 다음과갓다

▲水田 被害面積 一三、三一七、六三五町步 被害額 一三、三八六、九八三圓

▲大豆 九、九五四、三七九圓 二五、一八一町步

와 共히 朝鮮에서는 報告하얏다

鑛山 罹災地區가廣大 約一千五百個所

今番水害로 因한 鑛山關係의 被害에 對하야 八日總督府局會議席上에서 石田鑛山課長은 殖産局長代理로 報告한바 잇섯는데 이에 依하면 直接被害를 본 곳은 忠淸北道、慶北、慶南全南 等地의 金山、江原道의 寧越石炭坑의 被害가 甚大하야 工作物의 破壞流失等만이 七十萬圓假量이다 그러고 水害地域의 鑛山은 約一千五百個所가 잇섯는데 鑛區의 浸水를 본것이 約八百個所로 運搬路線의 被害等이 만코 小規模의 鑛大採掘地에도 被害가 不少한모양이나 이點은 아직 詳細不明이다

米穀統制組合은 十月末까지組織

朝鮮은三法令作成

米穀自治管理法施行令(勅令)은 八日閣議에 上程하야 十五日頃公布키로決定되엇는데 이것의 公布와 共히 朝鮮에서는

一、府令에依한 施行規則(自治管理法과 施行令은 一元的으로 外地適用)

一、米穀統制組合의 定款案

一、米穀統制組合業務規定의 三法令을 作成하고 各道農務課長會議를 招集하고 各道에 約百九十의 統制組合을 組織하야 同道聯合會組織等의 手續을 十月末까지에 完了할必要가 잇서서 農產課에서는 七日課長의 歸任과 共히 一寫千里의 스피-드로 右準備工作을 整備키로되엇다

自管法施行期

◇……十五日로決定

自治管理案의 施行에 關하야서는 八月上旬以來 山澤農產課長이 渡東하야 中央과 折衝을 거듭하얏는데 七日歸任 八日의 局長會議에서 施行準備가 進하던 自治管理案施行規則勅令事項은 八日의 閣議에 上程하야 十五日付로써 公布施行키로 決定하얏다

短期强制 貯藏廢止

明年度로부터

朝鮮米의 移出月別統制策으로서 累年連續實施中인 朝鮮米短期强制貯藏은 補助年額 四十四萬圓으로써 玄米 二十萬石 正租三十四萬石을 一月末까지 貯藏하고 出廻調節上 불만한 實績을 擧코잇는데 米穀自治管理法의 實施에 依하야 右는 來米年度부터 中止키로 되엿다 이것은 從前 內外地米統制의 二元的統制의 結果로서 朝鮮의 產地調節의 役割을 가진것이엇스나 自治管理法의 施行은 統制의 一元化로되어 產地의 必要上 外地에의管理統制比率이 高率로되는關係上 右實[illegible]

"鮮滿拓殖"創立

九日午前總會開催

總督府多年의 懸案인 鮮滿拓殖株式會社創立은 九日午前十時부터 長谷川町 銀行集會所에서 創立總會를 열고 創立되엿다 創立總會는 開館에 大野創立委員長의 創立經過報告가잇고 다음의 順序로 議事를 進行하야 最後로 二百株以下 理事、監事等 新役員의 人事가 잇슬터이라고

一、創立事項報告의件

一、定款의承認

一、監事報酬의件

一、朝鮮民事令에依함을定한 商法第百三十四條의 規定에依한 調査報告의件

▲粟 九六五、〇一一圓 一〇、〇五九町步 ▲桑 一、七四九町步 一〇八、九三九圓

▲棉 四六四、二〇九圓 五、三四一町步 ▲果樹 七、三八一町步 五六〇、五四一圓

▲蔬菜 一五三、〇七〇圓 一二、三〇〇町步 ▲雜穀 二、九八〇町步 一二七、三八六圓 ▲其他 五六六、三四七圓

移民靑年養成費要求

明年度二十萬圓

鮮滿拓殖의 創立과함께 마침내 朝鮮人의 滿洲移民이 本格的으로 活動을 開始하야 今後十五個年에 八十萬人을 移送할 計畫인데 同時에 이들移民의 素質向上이 目下緊要問題로되여 總督府外事課에서 銳意 硏究한 結果 總督府가 都市와 農村에 靑年養成에 注力하야 非常한 成績을 擧하는데 鑑하야 明年度부터 其形式에 依하야 鮮滿拓殖의 根本指導方針을 注入한 移民靑年의 養成을 企圖하야 滿洲에 二、三個所 北朝鮮方面에 一個所 各各 移民中堅靑年養成所를 開設하거로 되엿는데 其經費로 二十萬八千圓을 明年度豫算에 計上하기로 要求한바이엇스나 財務局에서 査定한結果 削除되고되엿는데 外事課에서는 在滿鮮人移民의 指導監督上 絕對不可缺할事業으로 其復活要求를 하야 其實徹을 期하기로되엿다고

拓殖監理官制

鮮滿拓殖指導의 實徹을 期하기로 되여 그監督의 萬全을 期하기 爲하야 總督府外事課에서는 明年度부터 同課에 監理官制를 設立하고 事務官一名 技手一名 屬一名을 增員하라고 所要經費三萬圓을 要求中이더니 財務局의 查定에 엇서 削減되엇스므로 곳 그復活要求를 하게로 되엿다고

經濟界消息

○朝鮮石油會社 [illegible]式八日擧行 朝鮮石油元山工場의 竣功式과 同社開業式은 八日午前十一時 總督府에서 南總督代理 穗積殖産局長以下 各關係官及 寺本航空本廠長 支所長等이 臨席하야 橋本社長司會下에 朝鮮式後 官民二百六十餘名의 披露宴이 잇섯다고

○朝銀、殖銀의 合倂必至說이 東京으로부터 放送

○朝銀、殖銀分立 行券統一後 朝鮮、殖銀分立이 無意義化 하리라는것이 根因이라고

○그런데 實現은 將來는 全朝鮮 一銀行으로 되지나 안흘가?

○『拓』字의 流行도 相當 요새 滿洲拓殖、南洋拓殖、鮮滿拓殖、東洋拓殖、南米拓殖… 이것도 國策氾濫의 一端으로 볼것

今日財界 (八日)

◆米 (單位圓)

	先限	前日比
仁川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

金	一匁	[illegible]
銀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	前日比
朝鮮取引所	[illegible]	不變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大阪株式	[illegible]	[illegible]
大阪東新	[illegible]	[illegible]
大阪大新	[illegible]	[illegible]
大阪化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不變

朝取業績樂觀

二割配當繼續

朝取는 米豆部의 業績이 大槪 前期에 比하야 好調이오 證券部도 秋市場[illegible]下에 [illegible]하야 現狀대로 繼續될 것으로 [illegible] 二割配當도 可能하리라고 [illegible] 實績으로 朝取七十六圓台 [illegible] 二十一圓台는 [illegible] 이 實付치안코·도賣付케하고서는 [illegible] 안는모양이다

九月七日現在

朝取當期의 業績은 九月七日現在 在庫賣高가

株式 [illegible]

米豆 [illegible]

으로 이것을 前期의同日現在高로 比較하면 株式十五萬一千二百九十二枚 米豆七百三十二萬四千石 前期에比하야 株式二十一萬七千六百六十枚 米豆四百十四萬二千五百石의 各各增加를示하얏다 依하야 記錄的業績을 示하엿다

朝鮮米는凶作

日本內地는豊作

今日은 二百十日의 厄日을 無事經過하고 日本內地는 三日前後의 好天氣에 氣候도 不安定하다 豊作이며 十日의天候도 稻作의 豊作[illegible] 以上 豊作을 [illegible] 東北[illegible] 地方의 [illegible]에 依하야 [illegible]이 [illegible]하고 [illegible] 當地市勢가 一齊反落을 [illegible]하고 [illegible] 其他市勢는 一齊反落을 [illegible]하야 그 [illegible] 低落[illegible] 入하고 [illegible]이 [illegible] 日本內地米作이 六千二百萬石을 算하는데는 到底히 實買成立할수업스나 그러나 日本內地米作의 六千二百萬石을 算하는데는 朝鮮米의 如한 것은 黑不足[illegible] [illegible]하고 [illegible]가 [illegible] 今年의 朝鮮米의 移出量이 九百五十萬石으로 見한다면 朝鮮米는 中限以後의 [illegible]하게 [illegible] 明年度에는 本年朝鮮米의 減收量 程度만큼 移出도 減할것이며 日本內地는 豊作이라면 [illegible]는 [illegible] 朝鮮米의 大勢를 [illegible]하야 [illegible]할수 잇다고云云

十月限의前途

畢竟은低落?

昨今阪仁兩地의 三期限을 觀하면 當限은 二年續凶作後의 [illegible] 期인만치 [illegible]가 [illegible]하고 受米를 [illegible]하는 關係上 容易히 低落不許하야 阪地三十三圓八九十錢臺 當地三十一圓五六十錢臺를 維持할 [illegible] 比較的 下落狀態로 [illegible] 依然當限만은 日本內地의 [illegible]하며 [illegible]에 [illegible]하고 三十一圓臺를 維持할것이나 中限以後는 [illegible] 依然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買方	◇賣方	◇買方	◇賣方	◇買方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大阪電話】 賣方=中東側 地場 軟派 東京筋 買方=汐留兩側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下落

取米의賤落으로 買物이全無이오 氣配更히 十五錢下落이엇다

仁川氣崩

低價實需踏로 取引은 極히 不圓滑하고 期米의 反落으로 更히 十五錢崩이엇다

㊂三等三一、三〇 四等三一、〇〇 一等白米三三、〇〇

釜山續落

買方은 依然當用間의 精米側에 限하고 市況은 極히 活氣가 乏하야 定期의 漸落을 移하야 唱은更히 十錢續落이엇다

㊂三等三一、二〇 四等三一、五〇 四等三〇、〇〇 一等白米一三、七四

大邱續落

定期는 極히 軟調이나 產地의 頑强으로 顯著히 賣物이 出現치안코 市況은 沈靜裡에 保合이어고 取引은거의皆無에 相等한 狀態이엇다

㊂三等三〇、九〇 四等三〇、六〇 一等白米一三、三〇

群山保合

天候依復과定期軟調로人氣不立이오 日本內地賣行途絕로 取引은天閑散을呈하얏다 產地와는 依然沒交涉狀態를 繼續하얏다

㊂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一四、〇〇

木浦同調

定期는軟調이나 不作豫想으로써 手持의態度가 依然强하고 市中賣物은 拂底를 告하얏다

㊂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一三、〇〇

商況 【八日】

株式 閑散後에 上進

前場閑散

雙方無戰意、新動機待로 場面至極閑散이오 市勢不動이엇스나 即 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二十錢高인 百二十五圓八十錢、日產二十錢高인 八十一圓五十錢、朝新十錢低인 三十二圓丁에 各大引되고 鐘新百六十五圓六十錢 一本이 잇섯다

後場上進

後場은東新百二十七圓二十錢에上進 大新六十九圓丁 鐘新百五十六圓三十錢 朝新三十二圓十錢 日產八十一圓七十錢 日魯六十九圓九十錢 拓新二十七圓丁에 各大引되고 日產新二十八圓八十錢 北紙二十五圓 朝石三十五圓八十錢이 잇섯다

形勢觀望而已

雙方無戰意로

東新은百二十五、六圓臺、日產八十一圓臺、鐘新百六十五、六圓臺에서 雖上雖下의 保合商狀이며 新動機待閑散으로 形勢觀望하야 雙方에 無戰意인바 新市의 一般的好調를 失하고 다시 裝散化한것은 高價에 對한 買警戒와 利賣에 依한 것으로 一般的狀勢로서 보면 依然히 强氣方針의 變更을 認할수업다 市況이 이러케되면 逆轉을 思하는者만이나 現在의 株式市勢는

1、投機萬能時代와 달리서 昨期間의 큰市勢가 업는것

2、그대신 財界好調에 順應하야 어디까지든지 投資本位로 低價株의 消極的强氣인것

3、그대신 上伸이 急激하면 必然히 利入賣物을 浴하는것 等으로 어떤 [illegible] 觀念으로 現상[illegible]일뿐이어야 할것으로 財界自體의 變動만업스면 어디까지든지 目貫一貫이어야할것이다。

期米 卅九圓割 續崩

前場續落

昨後場阪地三十一圓二十七錢에 漲을止한 共히 當市場一圓二十二錢止와 二十九圓二十七錢에 [illegible]

[illegible]……市勢가 다시 不動이니까 逆轉說이 擡頭▲ 그러나 財界實情에 變化가업는限 秋市前의 中間變轉으로봄이穩當▲東京來客側은 八月에 强氣로 進하야 地場散退로 終하얏는데 今月부터는 더구나 來客買가 得勝할것▲朝新은 今期二割配當可能說으로 買物로보이나 地場의 賣買策에 反하는 方策이 一變치안는限 섯다가는 또 속을것。

米……白墨無點의 今日!東阪其他各地가 又復一落을告하다 아프로 二百二十日이 無事하면 또다시 散落瓦落을 告할모양?▲朝鮮은 凶作임으로 安心賣를 할수업스나 大阪의 當限은 [illegible]하고야마는 當地인 만큼 結局反落하고야마는게▲當限의 만흔 期近에 [illegible]을 告하게될으로 依然頑强味를 添하나 그러나 先限은 別問題▲그래서 今朝阪地先限의 三十一圓〇八錢의 反落하는바람에 當地亦九圓〇九錢까지反落、아주 玄餘勢는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一、〇五 ▲四分利一〇一、六五 ▲佛貨四分九六、四〇 ▲[illegible]四分利[illegible] ▲第三五分利[illegible] ▲佛貨四分[illegible] ▲米貨六分半[illegible] ▲滿洲公債[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 日銀의公債賣止解除가 今月末現赤字公債發行과 同時에 行한다하야 人氣幾分軟化이오 米貨債의 弱 四十錢低를 비롯하야 內債도 一齊히五錢乃至十錢低調로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루미 [illegible] ▲昭和人絹 [illegible] ▲人造羊毛 [illegible] ▲東株新 [illegible] ▲東洋拓殖 [illegible] ▲東邦人造絹 [illegible] ▲人造肥料 [illegible] ▲電氣化學 [illegible] ▲朝鮮興業 [illegible] ▲[illegible] (取引高[illegible]枚)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銘柄	當限	中限	先限
東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富士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現株

銘柄	
同新	[illegible]
同新	[illegible]
同新	[illegible]
同新	[illegible]
同新	[illegible]
日石	[illegible]

東京短期

	前場	後場	高價	低價	大引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銘柄	前寄	前引	後寄	後引	高價	低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 株
仁川 京城
金益夏商店
金益證券部

株式 (朝取短期) 八日

銘柄	前場	代引	後場	大引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船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期米 八日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石金 分析 賣買 土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一〇番地
電話本局②三三一六番
振替京城一一五一五四番

大邱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合計 賣 [illegible] 買 [illegible] 先 [illegible]

本期累計 [illegible] 石

群山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期米
福
仁川 本町 吉村榮左工門商店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正米賣買高

日本米 上 [illegible] 中 [illegible] 下 [illegible]

朝鮮米 上 [illegible] 中 [illegible] 下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玄米/白米) 一〇〇七、四三九 一七九、七六六 朝鮮(玄米/白米) 二三七、五二四 [illegible] 台灣(玄米/白米) 二二六、〇二三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賣方	買方	取組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賣買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地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名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單位錢)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龜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八日

大阪綿糸

	前寄	前引	後寄	後引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前寄	前引	後寄	後引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地人絹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阪先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先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福井先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前寄	前引	後寄	後引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現物 D格 七二五錢

大阪砂糖

	前寄	前引	後寄	後引
當限	二・大	二・大	二・八三	二・九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現物 糖(ST) 賣買中價 一二〇・七五錢

海外砂糖

爪哇九・十月	[illegible]
爪哇	[illegible]
紐育	[illegible]

七日

시카고期米

九月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限月	[illegible]

七日 四志五片

金融 八日

◆海外經濟◆ 七日

倫敦金塊 一四〇志[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倫敦銀塊 [illegible] 紐育對英 [illegible] 對佛 [illegible]

◆朝鮮銀行券◆ 七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F本銀行券◆ 七日

發行高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枚數	金額
今日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illegible]
對英	[illegible]
對佛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白金 [illegible] 金地金 [illegible] 銀地金 [illegible]

◆京城府中金銀價◆

[illegible]

物價 八日

◆京城雜穀◆

品名	上	中	下
玄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等白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 大豆

品名	上	中	下
玄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多摩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雄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鐵 押粕 冲價◆

[illegible]

◆鳥 近 沢 價◆

[illegible]

◆日本 麥粉 市勢◆

[illegible]

◆滿洲 商況◆

[illegible]

◆大連 特產 市勢◆

[illegible]